

BEING ART  
장애인예술 매거진

아름다운 영토

# 美지

2021 겨울호 VOL. 22



# LS, 세계의 미래를 스마트에너지로 관리합니다

LS의 스마트에너지솔루션이

친환경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으로 세계의 미래를 밝힙니다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 스마트 공장·빌딩·홈·캠퍼스 시스템



**F**UTURING SMART ENERGY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LS**

(주)LS | LS전선 | LS산전 | LS-Nikko동제련 | LS엠트론 | LS글로벌 | LS아이앤디 | LS빌드윈 | LS메탈 | LS사우타 | LS메카피온 | LS오토모티브 | LS네트웍스

아름다운 영토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 2021 겨울호 VOL. 22

발행인 및 편집인 | 방귀희

제호 | 석창우

발행처 |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발행일 | 2021년 11월 15일

등록번호 | 금천-바00028(2016. 07. 02.)

주소 |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지식산업센터 B동 2506-2호

전화 | 02-861-8848 팩스 | 02-861-8849

이메일 | klah1990@daum.net

홈페이지 | www.emiji.net

인쇄인 | 이기현 (주)현문자현

### 편집자문위원

김인설(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김희정(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교수)

나종민(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박관후(영동유원대학교 문화복지융합학과 초빙교수)

박현희(성산호대학원대학교 HYO예술융합학과 교수)

윤재웅(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학장)

### 편집위원

강남국(문학/활짝웃는독서회 회장, 수필가)

강원래(방송/공파리유랑단 단장)

김용성(영미문학/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김용우(무용/힐체어 무용가)

석창우(미술/수목크로키)

정승재(법학/장안대학교 행정실무학과 교수, 소설가)

### 편집운영위원

김현식(대중문화/문화평론가)

김현일(미술/디스플레이블드 대표)

이성모(연극/LSM 대표)

정은현(음악/TOOL MUSIC 대표)

함의영(출판/피치마켓 대표)

### 편집부

차희정(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정현우(방송작가, 시인)

김세령(본 협회 실장)

최부암(PHOTO)

장애인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와 MOU로 『E美지』 콘텐츠는 에이블뉴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가: 12,000원/1년 정기구독료 40,000원/단체 1년 구독료 100,000원(3권)

신한은행: 140-011-408445(예금주: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ISSN 2508-4984

\* 『E美지』 발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한 장애인문학 진흥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아름다운 영토



2021 겨울호 VOL. 22

아름다운 영토



2021 겨울호 VOL. 22

CONTENTS

## 첫 번째 바람이 분다

**010** 2021美캠페인 명예대사 이상봉 메시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

**012** 초대석 장애예술인들의 옹호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017** 4월의 사과 대통령이란 직업의 자리는 16번째

**020** 스터디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위험한 이유

**038** 스페셜 꽃을 그리는 최정아의 맞춤형 BF하우스

**049** 별에서 온 詩 불멸의 꽃 \_ 강동석

Immortal Flowers \_ Gang Dong-seok

**053** 중계석

**054** 행사 | 문학지 『푸른사상』 장애인문학을 특집으로

2021장애인문화예술축제 - '詩, 피아노 선율에 스며들다'

2022년 <장애예술인수첩> 개정판 - 장애예술인 등록 발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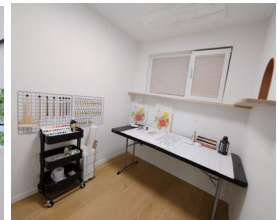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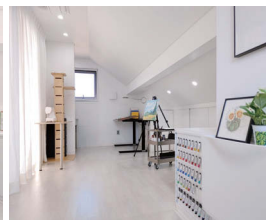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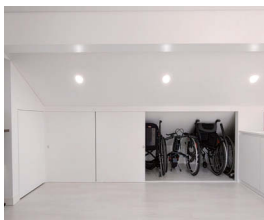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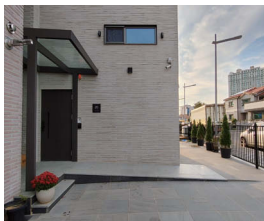
010



012



054





일몰(표지) 강내균(자체장예)

## 두 번째 반하다

### 060 문학

2021 구상숏대문학상의 얼굴 한승완

### 074 미술

화가 가족 강내균의 저력

### 093 음악

Soprano 강유경의 거위의 꿈

### 099 대중예술

만능 엔터테이너 김리후

### 106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희망 소생술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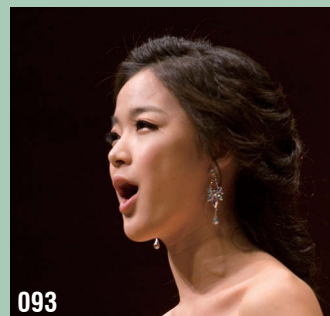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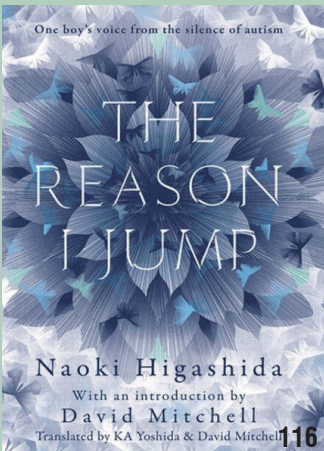






Photo by 최부암 <궁남지 겨울>, <익림지 겨울>, <덕수궁 낙엽길>



135



147

## 세 번째 변화하다

116 A\_컬처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 다를 뿐 \_ 김현식

121 김들 웹드라마 딱 나 같은 딸 1화

128 인문학으로 보는 장애인

128 한국 장애인사 관현맹인 홍석해, 하효달, 김석명

132 세계장애인물사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독서

135 피플 소통의 아이콘 신홍윤

145 삶을 나르는 詩 문인수 <쉬> \_ 강남국

147 우리do캠페인 탤런트 박민우의 전신마비장애

149 문화계 소식 방탄소년단 신곡에 국제수어 퍼포먼스

장애아 육아 웹툰 <열무와 알타리>

배우로 성장하는 밀리센트 시몬스

BBC 어린이 프로그램에 다운증후군 웹스터 MC 발탁

154 자유게시판 아트앤슈어링의 공감각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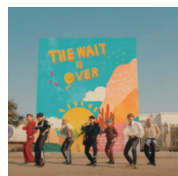
156 『바로 당신!』

157 『인생예보』

158 책 아저씨 강남국 1, 2권 완결!

159 싱싱한 메시지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

160 장애예술인수첩 참여자 공모





한글, 영어, 한문을 조합하여 차이와 특성으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 되겠다는 장애인예술의 각오를 담은 것으로 석창우 화백 작품이다. 제호 색상은 표지 작품 컬러에 따라 정해지며 한문 획으로 강렬한 포인트를 주고 있다.



## COL!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예술인 캐릭터 COL!은 만화가이며 발달장애 아들을 둔 부모인 이정현 씨 작품이다. 콘셉트는 아기광대이고 COL!은 communication(소통), opportunity(기회), love(사랑) 이니셜로 장애인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사랑으로 소통하자는 뜻이고, 소리 콜(call)은 소통의 응답인 '좋아요'이다.



## COL! 시즌2\_ 윙크하는 콜COL!

『E美지』 창간 5주년을 맞아 COL! 시즌2를 선보인다. 그동안 COL!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한 눈으로 장애인예술인의 잠재 능력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을 상징하였는데 이제 윙크하는 모습으로 장애인예술인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하려고 한다.



## 2021년 장애인예술 美캠페인 “Just Art!”

2021년의 장애인예술 美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는 “Just Art!”로 정했다. 삼육대학교 중국어학과 조민규 학생 아이디어로 장애인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이라는 의미로 장애인예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1년 한 해 우리 장애인예술인들은 “just art” 즉 ‘그냥 예술’을 외치며, 장애인예술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줄여 나가려고 한다.

## 회원 가입



- 회원 유형: 1년 구독 회원 ☐ 단체회원 ☐ 평생회원 ☐
- 1년 구독 회원: 회비 40,000원, 단체 구독 회원: 회비 100,000원(3권)
- 평생 회원: 회비 300,000원
- 신한은행 140-011-408445(예금주: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회비 입금 후 전화를 걸어 주시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Tel: 02-861-8848)







첫 번째

---

## 바람이 분다

---

『E美지』의 첫 번째 목표인 장애인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장애인예술의 바람이 일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독도를 찾아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내 가슴에 담아 왔다. 그리고 독도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중얼거렸다. 아마도 독도를 찾는 사람들은 잘 보살피 주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독도 사랑을 고백했을 것이다.

장애인예술이 나에게도 독도이다. 너무나 소중한 예술이지만 장애에 가려져 아니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예술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래서 美캠페인 명예대사로 참여하며 나는 장애인예술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였다. 그동안 사랑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그 사랑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였다. 코로나19로 명예대사 기간 동안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 속에 장애인예술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알리면서 장애인예술인의 활동을 응원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장애인예술인지원법」이 있어서 한국은 장애인예술을 선도해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며 'K-E美'로 세계적인 물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 장애예술인들의 옹호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조현래(趙炫來) 전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2021. 9. 3.~2024. 9. 2.)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진원 이사회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조현래 원장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서 합격한 이후 줄곧 문체부 내 콘텐츠, 예술, 관광, 소통 등 전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쌓은 문화행정 전문가이다. 조현래 원장은 과장 시절에 게임산업팀장(2006년), 미디어정책과장(2009년), 기획행정관리담당관(2010년), 저작권정책과장(2012년)을 거쳤으며 국장 시절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장(2014년), 콘텐츠정책국장(2017년), 관광산업정책관(2019년) 등을 맡았다.

조 원장은 2017년 콘텐츠정책국장 재직 당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대거 추진했으며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늘린 바 있다.

문화부 황희 장관은 ‘신임 원장은 업계와 소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면 콘텐츠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고,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온라인 시장(플랫폼) 성장 등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하였다.

문체부에서는 실무적인 자료나 보고서에 집착하지 않고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거시적



인 틀에서 현안을 풀어 가는 것을 항상 강조한다며 부드러운 리더십과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라고 입을 모았다.

조현래 원장은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한 조직관리 경험과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콘진원의 경영혁신을 이루고, 콘텐츠 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한류의 지속 확산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66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조현래 콘진원장은 진주 동명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그는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과를 졸업했으며 한성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역사가 되살아 움직인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디지털 실감 영상관이 마련되었다. 그곳에 들어가면 별천지가 펼쳐진다. 정적인 화폭 속 세상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동적인 세상으로 바뀌면서 환상적인 여정이 펼쳐진다. 폭 60m, 높이 5m의 파노라마 스크린에서 역사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금강산에 오르다〉는 매일 정선(鄭善)의 신묘년풍악도첩(辛卯年楓嶽圖帖) 등 금강산을 소재로 한 조선 후기 실경산수를 소재로 제작한 12분 영상으로 계절의 변화 속에 구룡폭포, 장안사, 삼불암 등 금강산의 절경이 눈앞에 펼쳐져 마치 금강산에 오르고 있다는 실감을 갖게 한다.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는 정조(正祖)의 화성행차. 기록화 속 등장인물을 3D로 구현한 작품인데 행사에 참여한 군중 하나 하나의 걸음걸음이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정조의 화성행차를 현장에 있는 백성이 된 기분이었다. 새벽에 창덕궁을 출발해 화성의 불꽃놀이까지,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자 했던 정조의 뜻이 느껴졌다.



11분 동안 관람자는 조선시대 정조와 백성들을 만나는 희한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현실로 되돌아왔을 때 제작 지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조 원장이 본부에 재직할 때 실감형 콘텐츠 사업에 앞장섰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조 원장이 펼칠 실감형 콘텐츠 사업이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가 된다.

### 대학로 이음센터 예산 확정된 순간

장애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으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를 위한 예산이 마련된 것이 첫걸음이다. 하지만 센터 예산이 쉽게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실패하여 2013년도는 연구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3년도는 센터 예산 마련을 위해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활발히 움직여서 국회의 원 7명이 센터 예산을 올려 주어 2014년도 예산에 포함되게 되었다. 리모델링 비용 53억 원이 결정되는 순간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분들이 문화부 서울사무소 앞에 있는 해장국집에 모여 자축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 조현래 당시 예술정책과 과장이 있었다. 그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며 센터가 생기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 「장애인예술인지원법」 제정의 산파 역할

「장애인예술인지원법」 역시 2012년도에 센터와 함께 시작하였다. <한국장애인예술정책연구>를 통해 법률 제정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 후 장애인예술인을 발굴하여 리스트를 정리하고 수첩을 만들어 장애인예술인들을 규합하는 일을 하였다.

— 「장애인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6.11.28.)

— 장애인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공청회 (2017.11.23.)

—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2019.07.16.)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9.08.20.)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나경원법과 김영주법을 병합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로 반대를 하면서 20회 국회에서 제정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20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이어서 그때 제정을 하지 못하면 8년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막다른 절벽에 부딪혔다. 그때 예술정책관인 조현래 국장이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보다는 기금 부분을 빼고 법을 제정한 후 개정으로 다시 기금 조항을 넣는 묘수를 알려 주어 2020년 5월 7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극적으로 제정되었다 (2020.06.09.).

장애인예술인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조현래 원장이 산파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조현래 원장은 장애인예술 발전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문화예술센터와 세계 유일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가 담당하던 시기에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감사의 인사를 하면 자신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조현래 원장은 장애인예술인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장애인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해 준 장애인예술인의 귀인(貴人)이다. 

\* 코로나19로 인터뷰가 어려워 조현래 원장님과 2013년부터 인연이 있는 본지 발행인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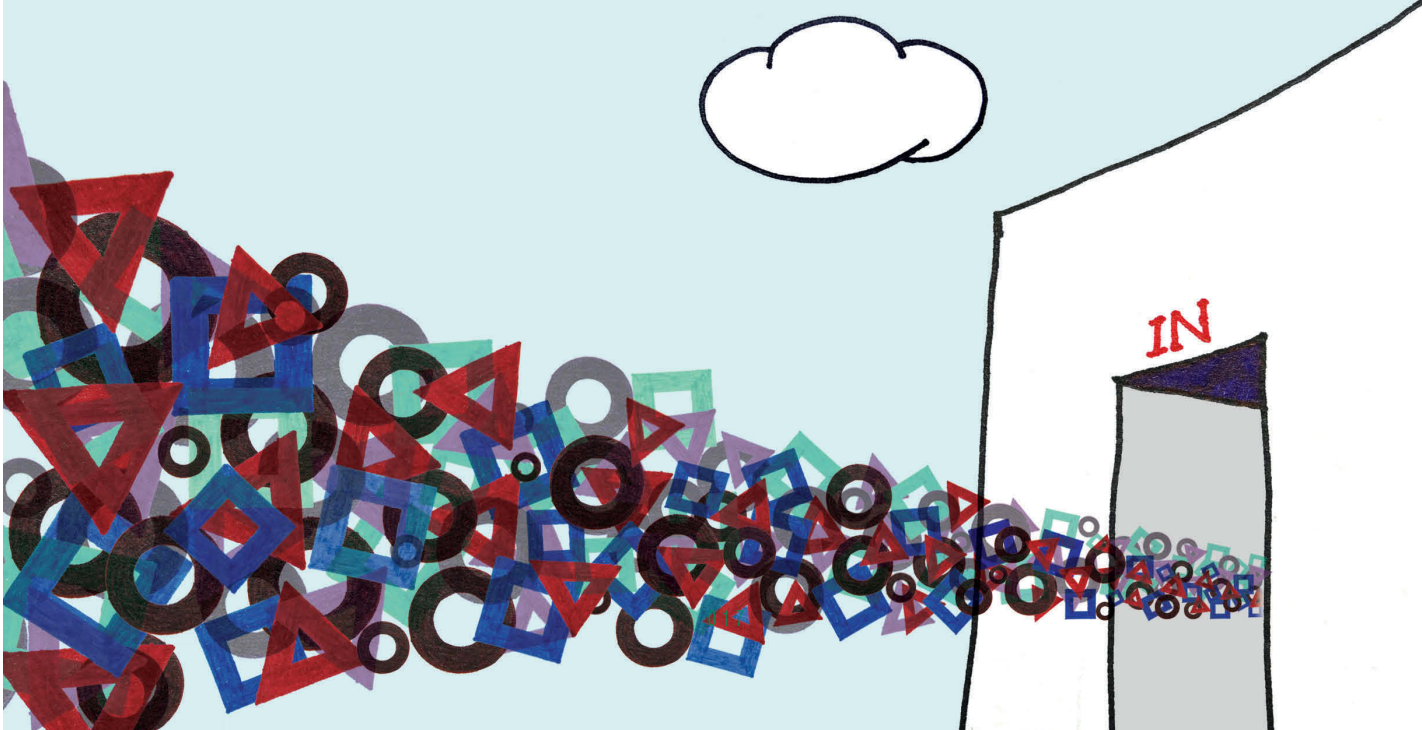
## 대통령이란 직업의 자리는 16번째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꽃이 그려진 화병은 1888년 프랑스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조선말 고종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하는데 카르노 대통령에게 이런 일화가 있다.

국정을 논하기 위해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회의장에 들어가니 대통령 자리가 가장 상석이었다. 카르노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16번째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여러분 각자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여서 각자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지만 대통령이란 직업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내 자리는 맨 끝 16번째 이 자리입니다.”

이 말이 요즘 아주 큰 울림을 준다. 대통령이란 직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대통령은 나랏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비록 영화이지만 아주 멋진 대통령을 보았다. 2013년에 개봉된 영화 <감기>인데, 이 영화를 만든 김성수 감독은 천재이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 전문가(의사)는 최초의 감염자를 찾아 그의 혈액으로 항체를 만들면 치료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지만 그 의견을 묵살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감염된 사람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감금하여 방치해 두고 죽으면 쓰레기처럼 모아 놓고 태웠다. 그런 사실을 알고 분노한 감염자들이 철장을 부수고 나오자 급한 군부는 발포 명령을 내린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논리로 말이다.

그때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경고한다.

“저 사람들도 내 나라 국민입니다. 내가 다 책임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도 바로 소수의 희생도 용납하지 않는, 진정 모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잘 이겨 내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만이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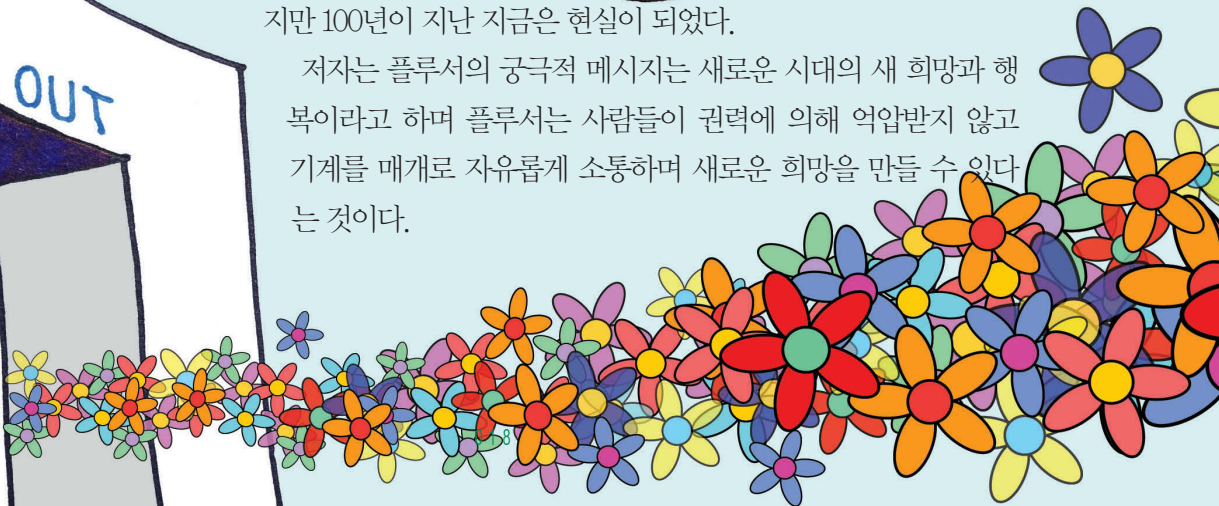
지난해에 발간된 올리버 비들로가 집필한 「빌렘 플루서의 미디어철학」이란 책을 보면 전문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된다.

1900년대 초에 미디어 철학자 빌렘 플루서가 이미 언택트시대 원격 소통사회를 예상했다.

그가 생각한 원격 소통사회는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기계의 중개로 소통의 그물망이 이루어진 사회라는 것인데 당시는 플루서의 주장이 뜬금없다고 일축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

저자는 플루서의 궁극적 메시지는 새로운 시대의 새 희망과 행복이라고 하며 플루서는 사람들이 권력에 의해 억압받지 않고 기계를 매개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OUT





당시 허무맹랑하다고 비판을 받았던 플루서의 미디어 철학을 보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중세에 지구가 둥글고 게다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17세기 초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생각난다.

그는 망원경을 발명하고 지동설을 증명할 수 있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이단 행위라고 기소되어 종교재판을 받는다. 그는 연구를 계속하려는 욕심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여 화형을 면하고 풀려나는데 그때 한 유명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였다.

이렇듯 전문가들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미리 알아내지만 그것을 사회가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때는 옛날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즘은 과학이 모든 것을 입증해 주는데도 전문가들의 주장이 묵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를 알아야 한다. 

글 방귀희/일러스트 김형태



#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위험한 이유

방귀희(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한 욕구는 자기 표현인데 그 표현이 주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말은 과녁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서 표적에 박히면 빼기도 힘들고 뽑아낸다 해도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표적이 많은 정치인들은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때론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파장 가운데 가장 큰 흔적이 남는 것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그런데 장애인 비하 발언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왜일까? 첫째는 언어습관 때문이고, 둘째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책임성 결여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가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 장애인 비하 발언 사례

### 1. 2018년 사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저게 정상인가’, 정신장애인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등 장애인 비하 발

언을 내뱉었다. 상대당 정치인들 가운데 정상이 아닌 정신장애인이 많다고 한 것은 지체장애  
인들에게 당신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려는 것이었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정신장애인

홍준표 전 대표 또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며 장애인 비하에 합세했다.

이 말 역시 정신장애인은 문제가 없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뜻이다.

정치적 논쟁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등장시킨 것이 장애인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의미야 어떻든 부정 평가에 장애인을 비유한 것은 장애인을 타자화하여  
배제시킨 결과가 된다. 이는 장애인은 자기네와 함께하기 싫은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심리  
상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 2. 2019년 사례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병어리

황교안 대표는 8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 연  
석회의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  
한 미사일 도발에는 병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했다.

황교안 대표는 3개월이 지난 11월 14일 사무처 월례조회에서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장님 코끼리 만진다, ‘병어리 냉가슴 앓듯’ 우리가 흔히 이렇게 썼던 말들이지만 일부 우리  
속담 속에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다. 저 역시도 전혀 비하하려는 의도도  
없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써 왔던 적이 있었다. 장애의 정의와 유형, 에티켓, 직장  
내 차별금지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다루게 될 텐데 저도 같이 듣고 그동  
안 무심코 생각했던 부분들을 고쳐 나가려는 노력을 하겠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꿀 먹은 병어리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8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병어리”라는 글을 게



시하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이어 갔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병어리, 외눈박이

홍준표 전 대표는 “야당 대표가 병어리라고 비판하니 왜 병어리가 되었는지 따져 보지는 않고 관제 언론은 병어리를 장애인 비하라고 시비만 한다.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됐다.”고 수위를 높였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를 비난하기 위해 병어리가 등장한 것인데 정말 이 말보다 더 치명적인 표현이 없었을까? 오히려 이런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비판의 격이 떨어졌다.

문 대통령의 침묵의 의미를 힐난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 조금 더 진지하게 표현을 했더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했을 텐데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내용을 희화시켜 그 중요성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정신병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9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해 식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사인데 조국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고 발언했고,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자 이를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정신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하였다.

####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병X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자유한국당)은 10월 7일 법사위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병X 같은 게!”라고 발언해 저속함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 3. 2020년 사례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절름발이

주 의원은 1월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지요.”라

는 발언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절름발이

이광재 국회의원이 7월 28일 열렸던 제380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였다.

이에 같은 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이 의원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고, 장혜영 의원은 “이렇게 한 걸음 다가와 주셔서 참 반갑다.”며 사과를 받아 주었다.

## 4. 2021년 사례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외눈박이

오세훈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진실에는 눈감고 거짓만을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외눈

추미애 전 장관은 4월 23일 자신의 SNS에 “언론상업주의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뉴스공장’은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의 방송이기에 남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외눈’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국어사전의 ‘외눈’의 뜻을 밝히면서 “접두사 ‘외’는 ‘혼자인’의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이란 뜻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외눈만 쌍꺼풀이 있다’, ‘외눈으로 목 표물을 겨누다’, ‘외눈 하나 깜짝 안 하다’는 표현에서 외눈은 시각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 비하는 더욱 아니다.”라면서 “진실에는 눈감고 기득권과 유착한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것인데 문맥을 오독해 제 뜻을 왜곡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추 전 장관의 발언을 비판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외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외눈’이라는 단어를 ‘양눈’보다 가치가 덜한 것, 편향적인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점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 추 전 장관이 든 예는 양눈과 비교해 가치가 떨어지는 무언가에 빗대는 비유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만 추 전 장관의 글에는 정상성의 기준으로 제시된 ‘양눈’이라는 표현에 대비되어 비정상성의 비유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눈뜬 장님, 외눈박이

심 의원은 4월 27일 자신의 SNS에 ‘최근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한 논란 중에 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하며 “2016년에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해 군 당국을 ‘눈뜬 장님’이라고,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비판하며 ‘외눈박이’식 결정을 했다고 논평을 내는 등 지난날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차별적 발언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이어 심 의원은 “차별적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지난날 저의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누구보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애써야 할 정치인으로서 늘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자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좋은 정치인의 기본 자세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 5. 기타

####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화성시 서철모 시장〉-배제

2020년 7월 17일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축소에 장애인들이 반대하자 ‘가족이 있는데 장애인을 왜 국가가 돌보냐.’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이 말이야말로 최고의 막말이다.

이에 앞서 6월 29일 장애인들이 화성시를 향의 방문하였을 때 휠체어 사용자들이 시장실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전기 전원을 차단시켰는데 이런 행위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최악의 배제이다.

####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조롱과 저주

2021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재명 지

사의 지사직 사퇴 문제가 후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선관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불공정 문제는 아니지만 적절성 면에서 사퇴했으면 좋겠다.'며 '지사로서 선거운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마음은 쿡발에 가 있지 않나. 직책을 놓고 뛰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인신공격성 문자폭탄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몸만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정신도 장애인, 장애인 주제에, 병신 어디서 나불거려 등' 장애를 노골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과 '휠체어 타고 지옥길 가라.' 같은 저주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8월 9일 같은 당 전혜숙 최고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민주당원으로서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 2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대응

### 1. 법적 근거

장애인 비하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 5. 6항에서 금지 규정을 하고 있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장애인계 반응

장애인 비하 발언을 쏟아 내는 정치인에 대해 장애인계는 가만있지 않았다. 잇따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등 7개 장애인단체는 2020년 8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인권위의 조속한 시정 권고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문화상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장은 장애인 비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 금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화상 국회의장은 장애인단체들의 국회의원 장애인 비하 발언 문제 제기에 화답했다. 2019년 8월 20일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다.

“평소 언어 습관대로 무심결에 한 표현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가슴을 멎게 하는 언어폭력이자 차별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은 마땅히 장애인과 관련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장애와문학학회는 2019년 10월 12일 창립식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문화운동 메시지 1호를 발표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언어가 막말 수준으로 정치인들의 장애인지 감수성이 심각하게 낮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말을 쏟아 낼 텐데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에 대해 낙천·낙선 운동에 나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3 국가인권위원회 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2월 30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꿀 먹은 병어리’, ‘정신병자’, ‘병신’ 등의 표현 행위는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혐오를 공고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진정인과 같은 정치인 등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크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피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가능하기에,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어 표현한 경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은 각하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기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각하 결정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임성택 인권위원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명백히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며 표현한 사건은 발언자의 지위와 역할, 발언 경위와 내용, 의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2014년 ‘병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표현을 언론보도 등 공적 영역에서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이러한 표현이 특정 장애인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판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4

## 장애인 비하 발언 분석

### 1. 분석 개요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18년부터 사례를 정리한 것은 그때부터 장애인계에서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수집한 정치인 장애인 비하 발언 사례는 12건인데, 그것을 정권을 쥔 여당과 정권을 잃은 야당으로 구분하면 <표1>과 같다.

| 여당 | 야당 |
|----|----|
| 3  | 9  |

〈표1〉 장애인 비하 발언 여야 의원 분포

야당이 여당에 비해 3배나 많은 것은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18대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19대 대통령이 더민주당에서 선출되어 20대 국회는 중간에 야당이 여당이 되었다. 정권을 빼앗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라고 막말 구설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 장애인 비하 발언도 속출하였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장애인 비하 발언을 장애 유형별로 분석한다면 〈표2〉와 같다.

|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장애 | 기타 |
|------|------|------|------|----|
| 2    | 4    | 3    | 3    | 2  |

〈표2〉 장애인 비하 발언 장애 유형별 분포

시각장애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시각장애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의도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심리학과 로렌스 로젠블룸(Laurence, D. Rosenblum) 교수는 시각장애인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시각적 요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각장애인의 보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니 이런 발언은 무지의 소치이다.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의 수가 12명보다 많은 것은 한 사람이 2번 이상 발언을 했기 때문으로 발언에 두 가지 장애인 비유를 사용한 것 역시 정치인의 어휘력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말해 준다.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처하는 정치인의 태도는 사과, 해명, 무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포는 〈표3〉과 같다.

| 사과 | 해명 | 무반응 |
|----|----|-----|
| 3  | 3  | 6   |

〈표3〉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처하는 정치인 태도 분포

자신의 발언에 사과한 정치인은 박인숙, 이광재, 심상정 의원이며 변명 성격의 해명을 한 정치인은 이해찬, 황교안, 추미애 의원이다. 무반응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지 않는 경우라서 그냥 넘어간 것이다.

정치인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에 사과를 했건 해명을 했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의도치 않았 다거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 의도치 않았다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이 보인 공통점은 ‘장애인을 비하할 목적이 없었고, 의도치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의식 속에 장애인 혐오가 내재해 있다는 뜻으로,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들을 늘 쓰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상 속에 스며든 단어는 어느새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게 할만큼 그 의미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하고, 동시에 이러한 무감각함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차별의식을 의미하게 구조화시킨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

### 사과 없는 해명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절름발이’ 발언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그것은 명백하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지적을 하자 본인은 사과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세게 비난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다. ‘절름발이’는 비유일 뿐이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장애인 혐오 표현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광재 의원의 사과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정치인 문제는 개인을 떠나 집단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외눈’ 표현 발언도 마찬가지이다. 추 전 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옹호하기 위해 김어준 방송은 양눈으로 보도하고 보수 언론들은 외눈으로 보도한다고 비난하였다. ‘외눈’이 장애인 비하라고 지적하자 추 전 장관은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신체와 관련된 단어를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태도가 대중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 2. 심리 상태 분석

심리학에서 대인 의사소통 분석에 기초한 상응작용 분석법(Transactional Analysis, TA)은 미국의 정신의학자 Eric Berne가 창안한 성격이론이다. TA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구조는 어린이자아(child ego), 부모자아(parent ego), 어른자아(adult ego)의 세 가지 자아 상태의 기능에 의해서 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아 상태(ego state)란 개인이 수시로 처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 개인 나름의 독특한 대응행동 양식을 나타내게 하는 기능을 지닌 그 개인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의 일관된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erne, 1964). 이러한 자아 상태를 나타내는 세 가지 자아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자아(child ego)는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여 순수한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자아(parent ego)는 양육적 부모자아와 비판적 부모자아가 있는데 보호적인 기능이 상대가 원하면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부정적 기능을 한다. 그리고 비판적 부모자아는 융통성이 없고 독선적일 가능성이 높다.

어른자아(adult ego)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다. 현실적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결단하는 성숙함을 보인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처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를 분석하면 일단 타인 그것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할 당시의 자아 상태(ego state)는 어린이자아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어렸을 때 했던 표현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것이다.

그 비하 발언에 공격을 받고 변명을 하는 경우는 부모자아가 발동한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부모자아라고 이름 붙인 것은 희생적인 양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또는 ‘너는 무식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니 내 말에 토를 달지 말라.’고 비판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과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 상황을 살펴보니 해명을 하는 것보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어떤 군더더기도 붙이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조기에 수습을 하는 어른자아의 성숙함을 보인다.

Eric Berne는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한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하면서 자기 감찰과 자기 반성을 통해 부정적인 면을 절제하며 억제하면서 성숙해진다고 하였다.

자기감찰 조정(self-monitoring)은 자신이 타인에 의해 어떻게 지각, 인식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타인에게 주는 자기 인상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sup>[이만규, 2001]</sup>.

## 5 정치인의 말은 사회적 메시지(social message)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한다든지 폭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마음 깊이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

혹자는 장애인들이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관용구를 인용했을 뿐인데 말끝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을 한 사람이 정치인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다시 말해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데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익은 대변하지 않겠다는 의미 즉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뜻이 된다.

TA학자 Harris는 자신의 저서 『I'm Ok-You're Ok』<sup>[1969]</sup>에서 자아개념 형성단계를 자기긍정-타인긍정, 자기긍정-타인부정, 자기부정-타인긍정, 자기부정-타인부정으로 설명하였다.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타인에 대해 수용적이어서 타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반대로 자아개념이 부정적일수록 타인을 비난하며 타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

수용(acceptance)은 비판·판단하여 어떤 낙인을 찍거나 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나 타인을 현존재(現存在)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수용은 허용이나 승인 혹은 동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수용은 변화, 성장의 가능성, 의사소통, 자존감 발달 등의 효과가 있다.

반대로 비수용은 폐쇄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들고 성장과 변화를 차단시킨다. 그리고 의사소통 대신 불통이 된다.

장애인계에서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여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깨진 유리창 법칙’ 즉 잘못을 방지하면 점점 확대되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이다.

정치인들은 프레임 효과를 많이 이용한다. 틀을 만들어서 넣어 두면 관리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계의 지적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막말하는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연장될 수 없다.

정치인은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막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말은 곧 인식이어서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는 자아 개념 속에 가치 조건들(conditions of worth)을 부여하는데 장애인 비하 표현은 무의식적인 부인(denial)과 왜곡(distortion)의 방어기제를 발달시키기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에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장애인 혐오 발언이 수준 이하 표현’이라고 자당 의원을 비판하였다. 장애인으로 5선까지 한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나선 것은 작은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금을 내듯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 멈추지 않으면 당에 위협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 장애인에 비유하는 표현으로 주로 정신장애인, 절름발이식, 꿀 먹은 벙어리, 외눈박이를 사용하였다. 모두 뭔가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비하 발언이 된 것이다.

이 표현으로 특정 피해자가 생긴 것이 아니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막말에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은 사회적 메시지(social message)이기에 잘못된 메시지로 우리 사회에 상처를 받거나 배제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6

## 의사소통 사례

TA에서는 대인의사소통 혹은 대화의 과정을 일련의 상응작용(transaction)들로 보고 있다.

Berne(1964)에 의하면 상응작용이란 사회적 상호교섭(social intercourse)의 한 단위로 기본 유형은 상보적 상응작용(complementary transaction), 교차적 상응작용(crossed transaction), 암시적 상응작용(ulterior)이 있다.

### 1. 상보적 상응작용

자극과 반응의 방향 관계가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사 방향이 일치한다. 그래서 관계 작용이 계속 유지되며(Woollams, 1974),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저를 던졌습니다!

지지자: (박수를 치며 연호를 외친다) 대통령! 대통령!

장애인: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할 지도자야!

### 2. 교차적 상응작용

대화가 서로 마찰을 가져온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방향이 평행이 아니고 교차된다. 그래서 단절을 초래한다(Woollams, 1974).

정치인: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저를 던졌습니다.

반대자: 국민 좋아하시네, 제발 국민 좀 팔지 마라.

장애인: 그 국민 속에 장애인은 없으면서…

### 3. 암시적 상응작용

자아상태가 나타나 보이는 것과 실제로 기능·작용하고 있는 자아상태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심리적 메시지(psychological message)와 사회적 메시지(social message)가 따로 있다.

정치인: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저를 던졌습니다



반대자: 치, 너를 위해 몸을 던졌겠지!

장애인: 또 장애인 팔겠구먼...

정치인: 장애인 여러분, 용기를 갖으십시오. 저는 장애인이 정상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이미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네.

장애인의 반대를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장애인 대중에게 말할 때는 비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말은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이므로 추상적인 수식어보다 장애인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것만큼은 빨리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치인: 진짜 장애인은 국회에 있습니다.

장애인: 그럼 우린 가짜 장애인이나.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거네!

장애인을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는 시각은 장애인 비하이기에 장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또한 '우리 모두 예비장애인입니다.'라고 장애인 집단에 소속되려는 발언도 진정성을 의심받게 한다.

## 7

## 장애인 용어

국가인권위원회<sup>(2017)</sup>의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 의하면 혐오 표현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장애인의 58.8%가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여, 조사집단(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혐오 표현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도 장애인의 58.4%가 불안을 느낀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sup>(2016)</sup>에서 실시한 'SNS에서의 장애인용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에 의하면 장애인용어 맵인 리트윗이 95%, 정신박야 리트윗이 82%, 귀머거리 리트윗이 79%, 병어리 리트윗이 74%나 되어 SNS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론조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는 선거기간을 ‘깜깜이 선거’라고 하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도로가 꽉 막혀 있는 상태를 교통마비라고 하는 등 모든 부정적인 비유에 장애를 남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용어에 민감한 것은 그 시대에 사용하는 용어가 장애인 인식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가 공식화된 것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sup>1)</sup>부터인데,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치루면서 당시 표현대로 장애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가장 먼저 제기된 이슈가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어 장애자 대신 장애인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범주를 15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하여 지적장애, 자폐성발달장애, 정신장애가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다.

요즘<sup>(2021. 7)</sup> 장애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2011년에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sup>(현재는 활동지원 서비스)</sup>의 전문인력인 활동보조인이 2019년부터 활동지원사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한 것은 활동보조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직업적 자존감을 높여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명칭 변경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의 직업적 자존감은 높아졌지만 장애인 이용자를 대하는 태도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이용자 A<sup>(메이스트북-2021, 7, 16)</sup>에 의하면 활동지원사가 ‘그런 일은 못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고, 그래서 언짢은 표시를 하면 그만둔다고 협박한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활동지원사 중 개기관에서는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은 안 하려고 해서요.’라며 ‘왜 기존의 활동지원사가 그만두었는지, 혹시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는지’를 물으면서 마치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억울해 하였다.

이용자 B<sup>(메이스트북-2021, 7, 17.)</sup>의 의견은 활동지원이란 용어는 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장애인 이용자들을 지원받는 대상으로 객체화하고, 시혜자와 수혜자를 수직적으로 상정하는 단어로 이용자

로서 이 용어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것은 봉사가 아니고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업무이기에 시혜자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지원이 아니라 언제든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보조가 되어야 맞다고 주장하였다.

활동보조이건 활동지원이건 제3자들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단어 때문에 자존감과 사회적 위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국민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정치인들이 마치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대선 주자들이 앞으로 많은 포퓰리즘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쏟아 낼 텐데 용어에 지원을 남발하면 표를 깎아먹는 결과가 될 것이다.

## 8

## 나오며

요즘은 정치를 말로만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설화(舌禍)가 계속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까짓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뭐 그리 난리를 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사회적 메시지(social message)이기에 국민 전체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자아 개념 속에 가치 조건들을 부여하는데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은 무의식적인 부인과 왜곡의 방어기제를 발달시키기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됨으로 정치인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 있다고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수용태도를 보면 인간에 대한 수용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해리스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면 타인에 대해 수용적 이어서 타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자아개념이 부정적일수록 타인을 비난하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였다.

수용은 자신이나 타인을 현 존재(現存在)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수용은 변화, 성장의 가능성, 의사소통, 자존감 발달 등의 효과가 있다. 반대로 비수용은 폐쇄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들어서 성장과 변화를 차단시키기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불통이 된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려면 공감 능력을 갖고 진정성 있는 수용으로 소통하면서 가치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함부로 말을 쏟아 내어 잘못된 메시지로 국민을 불쾌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유권자이기에 앞으로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막말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은 사회적 메시지이기에 잘못된 메시지로 우리 사회에 상처를 받거나 배제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이성태, 『인간관계론』, 양성원, 2017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7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SNS에서의 장애인용어 관련 빅데이터 분석〉, 2016

황교안, '병어리 발언' 논란에 "비하 의도 없었다", 연합뉴스, 2019-11-14

장애인단체, 황교안·하태경 '병어리 발언' 규탄...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2019-08-16

잇따른 정치인 장애 비하 발언, 장애계 공분, 에이블뉴스, 2019-12-18

주호영 의원 '장애인 비하' 장애계 부글, 에이블뉴스, 2020-01-10

거대 양당 잇따른 '장애인 비하' 못매, 에이블뉴스, 2020-01-16

'장애인 차별 발언' 이해찬, 또 인권위행, 에이블뉴스, 2020-01-17

"외눈박이·병어리·정신병"...반복되는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머니투데이, 2020-06-09

장애계, 이광재 의원 '절름발이'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 혐오표현, 비마이뉴스, 2020-08-05

오세훈 후보 '외눈박이' 발언에...박영선 후보 캠프 "장애인 시인 우롱", 여성신문, 2021-03-2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발언, 장애인 비하 논란, 에이블뉴스, 2021-04-26

심상정 "'외눈박이' 과거 차별적 발언 있었다." 사과, 한겨레신문, 2021-04-28

기타 관련 기사 각 사례별 포털사이트 자료 검색



## 꽃을 그리는 최정아의 맞춤형 BF하우스

요즘 TV 콘텐츠가 먹방에서 집방으로 옮겨가서 이런 저런 집방 프로그램이 많다. <구해 줘! 홈즈>를 보며 ‘어쩔, 저런 집이 다 있을까!’ 하고 감탄을 한다. 그런데 가장 큰 불만은 그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집들의 편의시설은 빵점이라는 사실이다.

집밖에서 집 안으로 진입하는데 턱은 물론 서너 개의 계단은 기본이고, 집 안에는 좁고 가파른 계단들이 마치 인테리어인 양 치장되어 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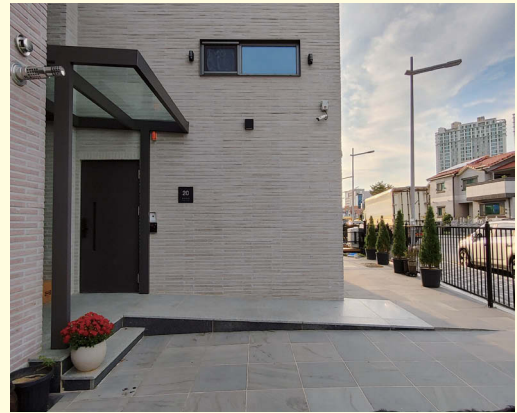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편의시설이 공공건물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그런데 경북 김천시에 개인 맞춤형 BF하우스가 있어서 소개한다.

우리 집은 경북 김천 혁신도시 내 공원과 인접한 곳에 자리잡은 듀플렉스 하우스입니다.

분홍색 집은 언니네가, 회색 집은 제가 살고 있습니다.



입구 경사로

#### \* 입구 경사로

팔힘이 약한 저를 위해 처음부터 경사로를 완만하게 설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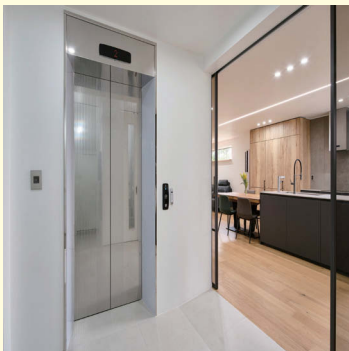
저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집 댕댕이와 냥이도….

#### \*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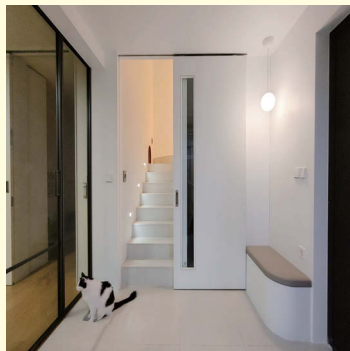
1층 현관에 들어오면 폭이 넓은 자동문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sup>(13인용)</sup>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의 동선 구분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현관에 두었고, 회전반경 확보로 인해 넓어진 현관에 따로 휠체어를 보관할 공간을 마련해 실내·외 휠체어를 갈아타기 쉽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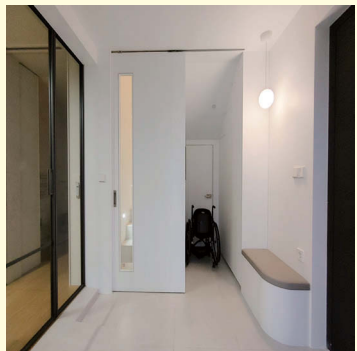
그뿐만 아니라 자투리 공간에 벤치를 설치하여 휠체어 바퀴 교체 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관-EV 자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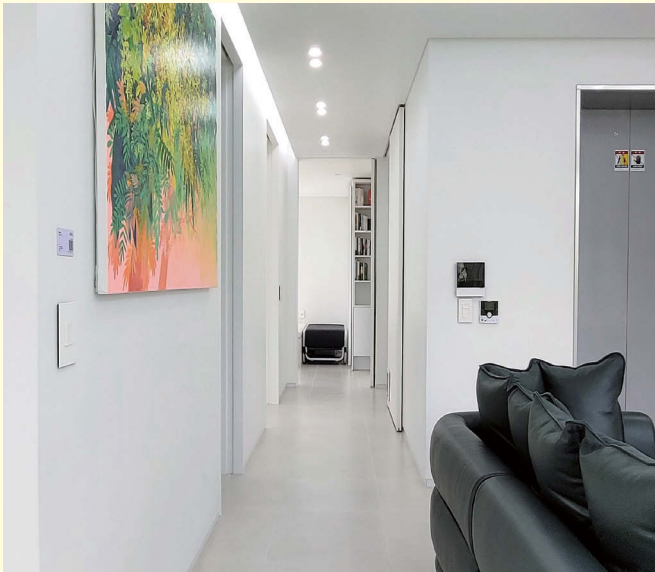
현관(계단)



현관(실외 휠체어 보관)



2층 거실 창



문(양방향 스윙도어)

### \* 2층 창

1층 현관에서 탄 엘리베이터는 바로 2층 거실로 연결됩니다.

2층은 제 주생활 공간으로 남·서·북쪽으로 큰 창을 내서 최대한 개방감은 주되, 창문 높이는 휠체어 높이를 고려하여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큰 창이 많다 보니 여름이나 겨울철 실내온도가 빠르게 변하는데요 이러한 단점은 창 외부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개념인 ‘외부 차양’을 설치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저는 체온조절이 어려워서 냉·난방 걱정이 많았는데 외부 차양 덕에 개방감은 누리면서 일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문

복도 끝 문은 양방향으로 열리는 스윙도어입니다. 휠체어로 밀고 나가면 되니 꽤 편리한 문입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모두 미닫이문으로 대부분 포켓도어(문짝이 벽안으로 들어가는)로 제작해 공간 차지 없이 열어 두었을 때도

외관상 깔끔하고, 무엇보다 문 폭을 일반문보다 넓게 만들어 수동휠체어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도 여유 있게 드나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 \* 운동방

재활운동을 위해 따로 운동방을 만들었습니다. 매트 운동 위주로 하다 보니 설계할 때부터 평상을 요청했었고 휠체어에서 트랜스퍼(옮기기)하기 가장 쉬운 높이로 제



운동방

작하였습니다. 창문도 이 높이에 맞춰서 설계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평상은 겨울철 높아지는 강직을 고려하여 난방도 기능하게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발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랫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파았습니다.

평상 좌측에는 휠체어를 세워 둘 수 있도록 공간을 두고 창밖을 보며 스탠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 키에 맞게 안전바를 설치하였습니다. 창 맞은편 평상 아래에는 운동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 \* 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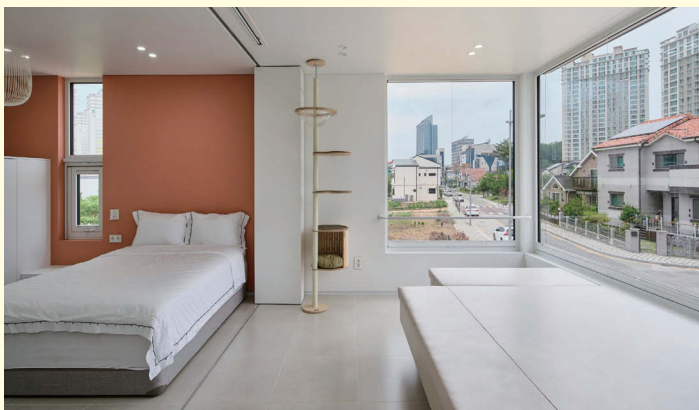
안방 가구는 휠체어 맞게끔 주문제작을 하였습니다. 가구 아래는 빈 공간을 만들어서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끝에 굴림을 줘서 문을 드나들 때 쥘고 돌기 쉽게 하였고, 다소 두꺼운 슬라이딩문 대신 한 방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을 사용하여 휠체어 동선에 방해받지 않게 했습니다. 가구 높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팔을 뻗어 사용하기 편한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



안방 가구



안방 침대



안방, 운동방(폴딩도어 개방)



다. 다소 낮은 가구로 인해 남은 위 공간은 고양이 캣타워(고양이 인형 아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입는 옷과 물품을 수납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방의 벽은 폴딩도어(접어서 틀 수 있는)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을 열면 운동방과 연결되어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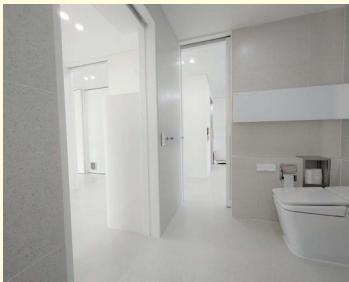
### \* 화장실

다른 공간에 비해 조금 넓은 화장실은 문을 두 곳으로 내어 거실과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워크인 욕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욕조 측면의 문이 열려 욕조 안 의자로 옮겨 앉으면 샤워 및 반신욕이 가능합니다. 욕조 사용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자에게 매우 쉽고, 무엇보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혼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면대는 휠체어를 탔을 때 무릎 높이를 기준 삼아 설치하고 세면대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볼의 깊이가 낮고, 팔이 지지할 곳이 있는 제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변기 옆에 안전바를 설치하는데요 힘을 많이 받으면 안전바가 타일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안전바 대신에 한 단을 앞으로 내어 트랜스퍼를 할 때 짚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변기 옆 수납장 또한 위로 열리면서 손이 닿는 높이에 맞춰 설치하였습니다.



화장실-문



화장실-욕조



화장실-세면대

### \* 주방

1층에 메인 주방이 있으므로 2층에는 저만 사용하는 작은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싱크대의 80cm 정도 높이는 저에게 너무 높았는데요 싱크대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싱크볼의 깊이가 얕아야 했지만 좀처럼 맞는 제품을 찾지 못해서 싱크볼까지 맞춤제작이





주방 1



주방 2



주방 3(이동식탁)

가능한 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제작한 싱크대입니다.

싱크볼이 얇은 대신 넓게 제작해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싱크볼 위에 이동되는 거치대를 얹어 조리대로 쓰거나 설거지 양이 많을 때는 거치대를 걷고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전의 경우 앉은 자리에서 팔을 앞쪽 멀리 뻗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측면에 설치하고, 좌측 서랍은 제가 숙이기 어려운 점을 배려해 크게 하나로 만들되 속 서랍을 두어 수납기능을 보충 하였으며 전자레인지에서 뜨거운 음식을 꺼낼 때 안전하도록 서랍형 받침을 제작해 전체적으로 주방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동이 가능한 테이블을 제작해 주방에서는 식탁으로 서재에서는 책상, 거실에서는 티테이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다락-휠체어보관소

휠체어를 사용하다 보니 휠체어가 망가지거나 고장날 경우를 위해 사용하던 휠체어를 처분 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붕의 경사면을 이용해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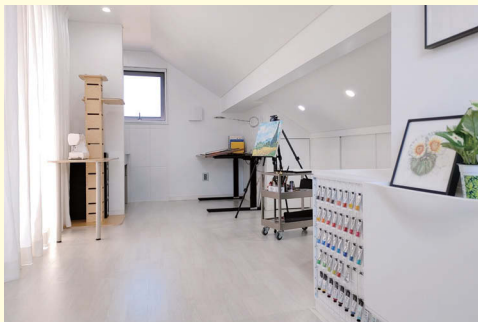
휠체어 보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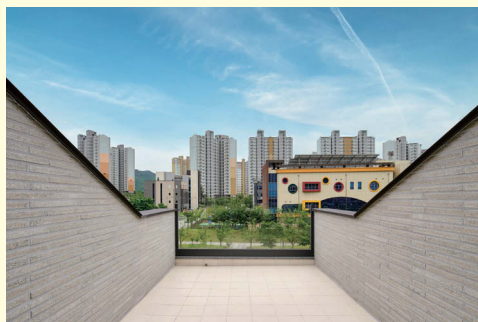
휠체어 보관 2(문 개방)



다락 (입구)



다락 (그림방)



테라스

### \* 다락 - 취미실과 테라스

제가 사랑하는 공간이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저는 취미가 조금 많은데요 책 수집, 보태니컬아트(꽃을 관찰하여 아름답게 그리기), 어반스케치(벤으로 밑그림 그리기), 수채화, 아이패드 드로잉, 최근에는 기초 소묘와 민화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미를 많이 가지게 된 연유는 처음에 손 기능 재활 치료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배워 가면서 심리적 안정도 되고 점차 대외 활동도 하게 되면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든 도전할 때마다 가족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힘들면 다락 앞 테라스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힘들다고 포

기하지 말고 즐기면서 끝까지 해 보자는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 \* 1층 민화방

최근 배운 민화는 화구가 조금 다른 까닭에 1층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였고, 1층 거실 테이블을 확장해서 민화를 같이 배우는 친구들과 모여 그림을 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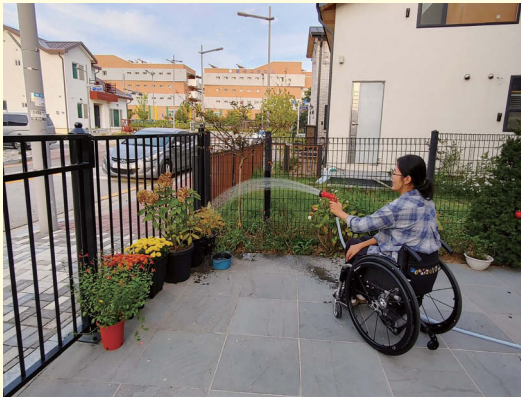
다치고 나서 오랫동안 집에서 혼자만 지내왔는데 그림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되어 주는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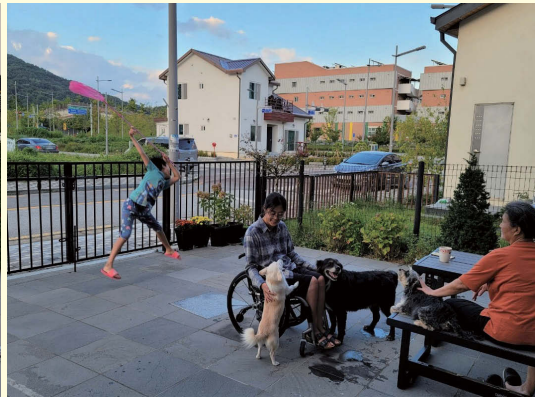
민화방 1



민화방 2



마당



마당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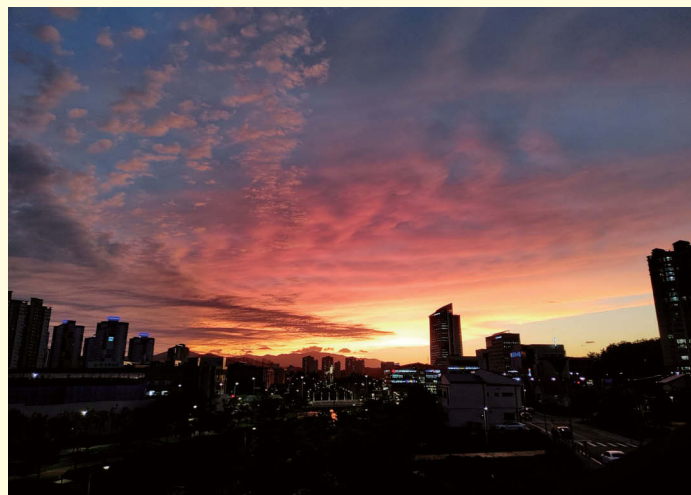
### \* 마당

우리 집은 주택이라면 응당 만드는 잔디마당과 정원을 포기하고 건물을 최대한 남쪽에 배치해 북쪽 마당을 넓혔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문제도 있었지만,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마당을 두고 정형 판석 디딤돌로 마감하여 휠체어가 마당에 드나들기 수월하게 하였습니다.

가족들의 배려 덕분에 돌마당에서 차도 마시고 댕댕이들과 놀고 화분에 화초도 키우며 조카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장애를 가지게 된 건 불운이었을지 모르지만, 덕분에 가족들의 큰 사랑으로 이렇게 모여 살게 된 건 참 따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 몸의 불편함에 맞게 집을 지었듯 저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 목표에 닿을 때까지 오늘도 그림을 그리다 테라스에서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붓을 잡아 봅니다.



노을





사고 전 최정아

BF하우스를 구경시켜 준 최정아는 84년생이다. 대구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구미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할 무렵인 2015년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다.

서울을 비롯해서 병원을 순례하며 5년을 보내고 퇴원을 해야 했다. 그녀가 퇴원을 하며 결심한 것은 혼자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몸은 고쳐지지 않으니 집을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혼자 들어가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자기 몸에 맞는 집을 연구했다. 2년 동안 생활하면서 경험한 집 구조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가족들과 땅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집을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시공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건축설계사였지만 그녀의 설명에 귀기울이며 하나하나 디자인해 갔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집으로 올봄에 이사를 왔는데 집을 고치자 집안에서는 큰 불편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





사고 후

이 멋진 집에서 그녀는 무엇을 할까? 그림을 그린다. 화가라고 하자 질색을 했다. 자기는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고 진정성 있는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었다. 실은 대학을 미대에 입학할 정도로 미술에 재능이 있었지만 졸업 후의 삶을 생각하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재수를 하여 전공을 바꾼 것이었다.

다친 후 뭔가를 하기 위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민화를 배웠다. 왼손이 그나마 마비가 덜하여 붓을 왼손에 쏙고 그림을 그린다. 그녀 집은 작업실이 두 군데 있다. 1층에서는 민화를 그리고 3층 다락방에서는 수채화를 그린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해서 지루함을 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화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층을 구분하여 작업을 한다.

그녀는 주로 꽃을 그리는데 꽃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스케치를 하러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예술이지만 그녀는 이 멋진 BF하우스에서 화가로 성장할 것이다. 

## 불멸의 꽃

강동석

1

나는 너를 향하여 걸었고  
너는 나를 향하여 걸었다  
해바라기처럼 간절한  
우리의 부름이  
어느 푸른 들에서  
만남으로 이루어졌을 때  
무언의 축복이듯  
동편 하늘에 해가 돋고 있었다  
처음인 얼굴  
처음인 마음  
처음인 고백  
안으로 깊어 가는 기쁨은  
처음인 열정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탄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2

무언들 못하랴  
너하고라면  
어딘들 못 가랴  
너하고라면

우리의 힘  
 우리의 걸음  
 움츠림 없이  
 우리의 진실로 일군 비옥한 토양에  
 씨뿌리는 마음으로 살리라  
 그 땅에 단비 내리어  
 새싹 움트면  
 말하리라, 곧은 걸음으로 이어 간  
 우리 사랑의 역사를  
 인내하되 게으르지 않으며  
 부지런하되 서둘지 않으며  
 정직한 걸음으로 이어 갈  
 우리 사랑의 미래도 말하리라

3

이제 같이 걷자  
 너 나 되고  
 나 너 되고  
 한마음으로 가자  
 사랑은 고귀한 것  
 꽃보다 선명한 불멸의 사랑을 위하여  
 너 나 되고  
 나 너 되어  
 우리 함께 가자.



강동석

남. 1954년생. 지체장애. 미국 이름은 강샘. 워싱턴 신인문학상(2008) 외 장편 <겨울 달이 허문 모래탑>, <저울 위에 앉은 하수아비>, 시집 <본타>, <불꽃놀이> 미국 장애인예술인들의 이야기 <여태요> 외 2세 때 그네를 타다가 떨어진 후 소아마비로 왼손만 겨우 사용하는 중증의 장애 속에서 13세 때부터 소설 시나리오 등 문학 전반에 걸친 습작을 가진 후 작가로 활동. 1992년에 미국으로 이민. Community College에 입학, UC 버클리대학 사회학과 전공. 졸업 후 미 탐하킨 상원의원 인턴을 자내는 등 다양한 사회 경험을 거쳐 현재 거북이교육센터 대표로 소외계층 교육사업에 헌신.

# Immortal Flowers

Gang Dong-seok

1

I walked toward you  
and you toward me.  
When our calling,  
ardent as a sunflower,  
was fulfilled in encounter  
in some green field,  
the sun rose in the eastern sky  
like a silent blessing.  
A new face,  
a new heart,  
a new confession,  
inwardly deepening joy,  
new passion,  
there our new birth  
went blazing high like flames.

2

There's nothing I couldn't do  
as long as it's with you;  
nowhere I can't go  
so long as I'm with you.  
Our strength,  
our steps,  
with no holding back,



will live as hearts  
sowing seeds in fertile ground  
tilled by our sincerity.  
When timely rain falls on the earth  
and new shoots emerge,  
we will relate the history of our love  
sustained by firm steps,  
patient without being lazy,  
industrious without rushing,  
ever sustained by truthful steps  
we will speak of our love's future, too.

3  
Now let's walk together.  
You becoming me,  
I becoming you,  
let's advance with a single heart.  
Love is a noble thing.  
For an undying love more vivid than flowers,  
you becoming me,  
I becoming you,  
let's advance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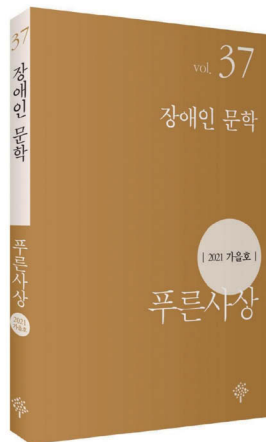
---

Mr. Gang Dong-seok (Sam Kang)

Born 1954. Physical disability. Awarded Washington Literature Prize for New Writers (2008) Poetry collections: Vacant Ground; Fireworks  
The poet is currently Director of the Tortoise Education Center, dedicated to providing education to disadvantaged children.

중계석





## 문학지 『푸른사상』 장애인문학을 특집으로

### — 장애예술인지원법 모범 사례

『푸른사상』 2021년 가을호(통권 37호)가 장애인문학을 특집으로 다루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인문학의 의미와 역할, 문학을 통한 장애인 인식 변화 등 장애인문학의 사회적 의미를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강남국(수필가), 김효진(동화작가), 손병걸(시인), 신홍윤(팟캐스터), 차희정(경희대 외래교수) 등의 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장애인문학의 이해를 돕고 있고, 장애문인 김미선, 김옥중, 박한라, 설미희, 이상국, 이지담, 정연수, 조은영, 최동일, 최명숙, 한상식 등의 시와 이태정의 시조, 김이삭의 동시를 독자들에게 선보여 장애인문학을 감상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예술적 인식과 열악한 환경을 고민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영화제의 현황을 탐구한 송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과 허혜정 교수의 문학론도 눈길을 끈다.

『숏대문학』에 이어 『숏대평론』을 발행하고 있는 방귀희 대표는 ‘장애인문학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맹문재 교수님이 발행하는 『푸른사상』에 장애인문학을 특집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 독자들에게 장애인문학을 소개한 것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0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실천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맹문재 교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에 작은 불씨를 마련해 주었다니 기쁘다며 장애인문학에는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인 문학’이라고 평하였다.

참고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2021장애인문화예술축제

### - ‘詩, 피아노 선율에 스며들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배은주 상임대표)가 매년 주최하는 2021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서 정적인 문학이 동적인 문학으로 변화하는 문학 낭독쇼를 선보이고 있는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올해 ‘詩, 피아노 선율에 스며들다’를 준비하여 주목을 받았다.

2012년 미국 신시내티대학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던 중 뇌졸중으로 편마비를 갖게 된 원손 피아니스트 이훈과 열한 살의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건호의 피아노에 스며든 이야기가 소개되고 김종태, 이종형, 장진순, 한승완, 주치명, 권주열, 김명희, 김민수, 강동수, 김옥순 숫대시인 10명의 시낭송과 함께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맹문재 교수의 시평으로 시를 가슴에 스며들게 해 준다.

방귀희 대표는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과 고품격 시 낭송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관객에게 심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며 2021축제 프로그램의 의미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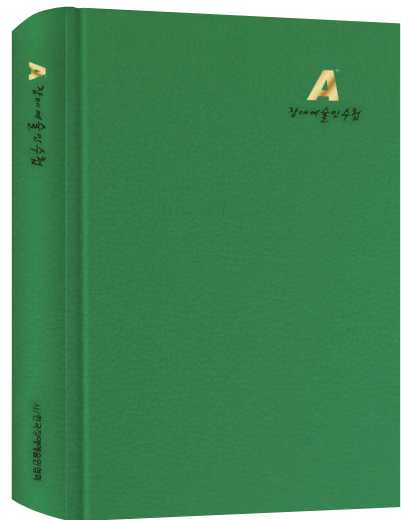
## 2022년 「장애예술인 수첩」 개정판

### – 장애예술인 등록 발판 마련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2018년에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발간한 「장애예술인 수첩」 덕분이었다.

당시 정부와 국회에 법률의 필요성을 제안하면 장애예술인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장애예술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장애예술인 수첩」에 실린 343명의 경력을 보고 장애예술인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는 2010년에 199명의 장애예술인이 수록된 「한국장애예술인총람」을 발간한 바 있고, 8년이 지나 선보인 「장애예술인 수첩」을 바탕으로 2018년 12월 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 현장 접수를 3일 동안 실시하여 장애예술인 200여 명이 예술활동증명을 승인받는 등의 노력이 결국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장애예술인 수첩」 발간 3년이 지나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문화재단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명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예술인실태조사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등 「장애예술인 수첩」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런데 방귀희 대표는 「장애예술인 수첩」이 정말 시급한 이유는 장애예술인 고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장애예술인 인증제도’이기에 장애예술인 활동의 목록화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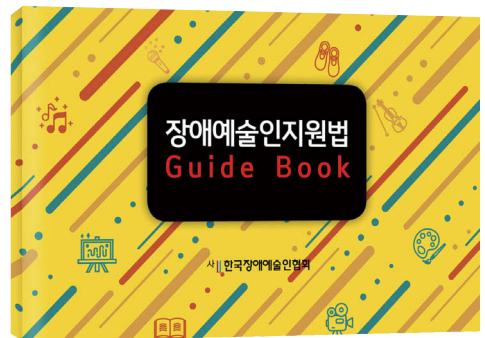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현재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 400여 명의 장애예술인이 등록되어 예술인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장애예술인 수첩」을 개정판을 만들어 예술활동증명에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 수첩」 등록 선정 조건은 각 활동 장르에서 수상 1회 이상 또는 작품 발표 5회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의 예술인(장애인복지카드 소지)이다.

\* 개인 작품 출간이나 개인 전시회 또는 개인 콘서트는 1회 이상

\*\* 활동 장르는 문학, 미술(사진, 건축), 음악(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예술활동증명 세부기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홈페이지 E곳 알림방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두 번째

## 반하다

『E美지』 두 번째 목표인 장애예술인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에 예술에 반하는 열정을 원합니다.





문학

## 2021 구상솃대문학상의 얼굴 한승완



한승완은 실속형 작가이다.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 걱정 없이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승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가장인 어려운 가정이었다. 자식 사랑이 지극한 어머니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들을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승완은 어머니 등에 업혀 등학교를 하며 학교생활을 하였다. 공부를 잘 했지만 체육에서 점수를 깎이고 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던 그즈음 승완은 점점 몸무게가 늘어났고,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아들을 더 이상 업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택하였다. 독학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2005년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다. 그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꾸준히 학업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 선한 직업 사회복지사 한승완

컴퓨터가 가정에 보급되기 전, 한승완은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장애인 목사님이 목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개설한 장애인 컴퓨터교실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 결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승완은 보조교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성실성을 인정받아 목사님이 그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20세에 드디어 월급을 받는 직업인이 되었다.

중증 지체장애인이 취업이 되었을 때 가장 힘든 점은 출퇴근이었다. 자가 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운전면허증을 획득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취업 장애인 대상 자동차 구입비 대출 사업을 이용해서 경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자동차가 생기자 사회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

사회에 처음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윤경열 목사님과 30년을 함께하며 차근차근 지금의 사회복지법인 행복원으로 성장시켰고, 드디어 한승완은 2019년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행복누리원장으로 취임하여 원생 30명, 직원 26명을 관리하는 대표로 자리매김하였다.

장애인계에서 탈시설화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며 올해만 해도 입소 상담 건수가 15건이지만 시설 정원제여서 누군가가 퇴소를 해야 입소가 가능하다. 탈시설화로 시설을 새로 만들지 않고 있어서 장애인시설이 부족 현상을 낳고 있다.

한승완은 자립이 가능한 원생은 적극적으로 퇴소를 지원한다. 지역사회로의 전환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주거시설에는 하루하루가 사건사고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초비상이다. 행복누림에는 무연고자가 43%나 되어 사망을 하면 장례까지 치루고 그 원생의 삶을 정리를 해야 하는 일도 해야 한다.

### 멋진 직업 시인 한승완

문학과와의 만남은 한승완의 자존감을 높여 주었다.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아주 재미있다. 신승훈 노래를 너무 좋아했는데 특히 그 가사가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보곤 하였는데 그것이 쌓이자 시가 되었다. 자신의 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찾다가 『숫대문학』에 투고를 하였는데 자신의 작품이 활자로 책에 실리자 매우 신기했다. 컴퓨터 파일로 있을 때는 초라해 보이던 시가 책으로 나오자 아주 근사해 보였다. 거기다 원고료도 보내 주어 너무 놀랐다. 창작으로 생긴 수입이 비록 액수는 적지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원고료를 받으면 그날은 가족 파티가 벌어졌다. 치킨과 콜라만 있어도 진수성찬이었다.

그런데 구상숫대문학상에는 도전할 하지 않았다. 자신의 시가 상을 받을 수준은 아니라는 겸손함이 만든 양보였다. 그러다 코로나19가 그를 다시 문학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 결과 2021년 첫 도전으로 구상숫대문학상을 수상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수상 소감 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도쿄올림픽이 한창이던 날 구상숫대문학상에 당선이 되



2012년 실로암문학상 시상식(대상 수상)



2012년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상(복지실천 분야) 시상식

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어도 참 행복한 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쁘면 사람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삶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구상숏대문학상을 받게 되다니..' 제 생애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올해는 구상숏대문학상에 46명이나 응모, 예년에 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다. 예심을 거쳐 올라온 10명 응모자의 시를 본심위원 유자효(시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맹문재(시인,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승하(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3인이 세심히 검토한 결과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되었다. 합산 결과 한승완이 최고점을 받았다고 구상숏대문학운영위원회(위원장 김초혜 원로시인)에서 밝혔다.

이승하 교수의 심사평 마지막 부분을 소개한다.

한승완의 〈벚꽃 백신〉은 자연의 치유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 나가는 과정이 실감 있게 전개되는데 언어의 조율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벚나무에 봄비가 찾아와 원료를 주입시키면/벚나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백신을 만들 채비를 한다”는 첫 문장부터 조성된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이 시의 최대 장점이다. 바이러스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퇴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나와 너의 거리, 청정한 자연이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 시인의 주장에 십분 동의한다. ‘감또개’ 같은 작품이 질적 완성도는 더 높다. 투철한 역사의식의 산물이어서 주제가 아주 미덥다. ‘탱고를 추고 싶었다’는 공감각적 표현이 뛰어난 시인데, 웬만한 기성시인의 시보다 훨씬 낫다.



2015년 오일뱅크1%나눔재단 사회복지사 수기공모전 대상 수상  
(심사위원 정호승 시인과 함께)



2019년 국무총리 표창 시상식

한승완 시인의 앞날을 기대감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싶다.

한승완은 올해 45세, 형님이 한 분 있지만 노모를 모시고 산다.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을 위해 밥을 짓는다. 주위에서는 결혼을 해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애를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아서 독신을 고집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을 돌보는 선한 직업에 시인이라는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 독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 성장 과정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두 다리가 태반에 눌러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보조기를 차고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중학교를 다니면서부터 학교 다니는 거리가 멀어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네 아이들과 곧잘 어울려 놀았기 때문에 뽀박질하는 것만 빼고는 장애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유천초등학교였는데 전교생이 3,000명이 되는 큰 학교였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장애가 불편하고 비장애인들과의 경쟁이 장애인으로서 부



아기 때 사진



가족사진

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교 진학을 권유받았지만 어머니께서 일반학교에 보내시겠다며 끝까지 싸우신 끝에 일반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비장애인 친구들도 사귀며 사회성이 많이 향상된 점을 늘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6년 내내 학교에 등교와 하교를 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어머니의 헌신으로 일반중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진학 때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사를 하고, 2009년에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에 합격하여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낮에 일하고 야간에 대학원을 다녔는데 공부에 배고픔이 있어서인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재밌게 다녔습니다. 대학원 동기 21명 중 딱 3명만이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그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장애인으로서 가지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오를 수 없는 계단, 휠체어장애인으로서의 불편함 등은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비장애인이었고 그 덕에 친구들과 노래방도 다니고 오락실도 다니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차가운 시선도 많이 경험해 보았기에 크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준비하기로 하고 저는 장애인 목사님께서 자비를 털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한밀의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밀의집에서 컴퓨터를 배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장애인 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되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를 공부해서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였고 1998년도에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워드프로세서 부분 3위를, 2002년에는 전자출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장애인세계기능올림픽 출전 후보 선발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매일 연습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런 성과였습니다. 1996년도 20세 때부터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기동력이 생기면서 활동반경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친구들,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물건도 직접 가서 사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행복누림 시설 가을 나들이



교회 모임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으로 대전광역시에 정책건의 면담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임원진들과 함께)

### 사회복지사를 선택한 이유

제가 컴퓨터를 배우고 또 장애인 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던 한밀의집이 사회복지시설 인가를 얻게 되었고 저는 첫 번째 정식 직원이 되어 사회복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장애가 있지만 저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을 위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한밀의집을 이용하던 분들이 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감도 구하러 다니

기도 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초를 마련하게 되고, 한밀의집은 제가 담당하여 사회복지법인 행복원으로 인가를 받게 되고 그 후로 장애인거주시설 2곳과 직업재활시설 1곳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제가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한밀의집의 전신인 보람의집에서 일하다가 2019년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행복누리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있을 때 휠체어를 타고 대전 공단으로 일감을 구하러 다니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프로포절과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로로 2012년도에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시상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권위 있는 아산상(복지실천 분야)을 수상하였고, 2013년도에는 모범장애인 근로자로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최고영예인 대통령산업포장을 서훈받기도 하였습니다.

### 작가의 꿈은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시간에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음악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라디오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폴잎, 원태연, 이정하, 류시화님들의 시가 인기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시집을 선물로 사줘서 많이 읽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수 신승훈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신승훈은 싱어송라이터로 작사도 했는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신승훈의 골수팬이 되었고, CD를 너무 많이 들어서 CD가 닳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승훈 3집 중에 이폴잎 시인이 작사를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시를 쓰고 시집을 내서 유명해지면 가수들의 작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글을 써서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돼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신승훈 앨범에 작사가로 꼭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의 작가라는 칭호를 얻는데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다는 생각. 신승훈이라는 가수는 저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준 가수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작가가 되고 싶어졌고, 그 후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뮤직라이프』라는 음악잡지가 있었는데 역시 신승훈 기사가 나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 코너 중에 시를 소개해 주는 코너가 있었는데 직접 쓴 시를 보내게 되었고 몇 번 시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를 보고 팬레터가 오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선물들이 왔습니다. 매일 편지가 오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혹시 아들이 연예인이냐고 엄마에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1998년도쯤에는 컴퓨터로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공부해서 신승훈팬피를 운영하였고 제가 쓴 시와 신승훈을 주제로 한 소설들도 올리기 시작했

습니다. 문학에 대해 공부하지 않은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 시간이면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했지만 저는 교실에 남아서 교실 뒤편에 놓여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읽는 재미에 푹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감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첫사랑이었던 사람과의 연애도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글 쓰기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공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 작가로 산다는 것은



집필중

시간이 날 때마다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1988년쯤 시 100편을 쓰게 되었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출판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 IMF 때라 신작을 내기가 어려워서 다음 기회를 보자고 했었습니다.

시 100편 정도 쓰는데 6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소설은 신승훈팬픽을 쓰다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장애인근로자문화제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첫 단편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3~4개월 정도 걸려서 완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단편소설은 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장애인 관련 공모전에 작품을 내게



첫 번째 시집 표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문학 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9년에 첫 시집을 발표하게 되고 2020년도에 두 번째 시집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장애인예술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분들 덕분에입니다. 첫 시집은 그동안 써 놓은 시들을 발표하였고 두 번째 시집은 신작들을 써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늘 꿈을 꾸며 사는 삶. 멈추어 있지 않고 늘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제가 쓰는 글들이 저의 길동무가 되어 줍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는 나무들도, 밤하늘의 별들도, 출근길에 마주하게 되는 아침 안개도, 때로는 내리는 빗방울도 모두 저의 글의 구슬이 되어 줍니다. 그것을 꿰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꿈을 꾸며 살고 싶습니다. 작가로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이유입니다. 바람에 움직이는 나뭇가지 하나를 봐도 우연처럼 여겨지지 않는,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참 행복한 삶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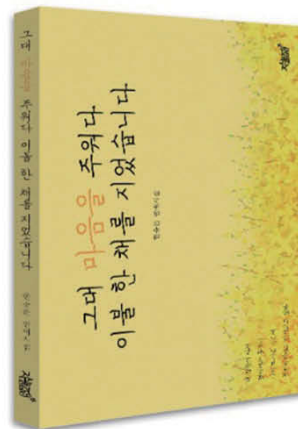
“마음이란 저장 공간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으로 애태우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책을 넘기는 순간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어 작은 위로가 되어 줄 시집이다.



저에게는 주시지 않는  
그대가 떨어뜨려 놓은  
따뜻한 마음 부스러기를 주워다  
이불 한 채를 고이고이 지었습니다  
올 겨울에는 추워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 그대 마음을 주워다 -

한승완 지음 | 값 11,500원



두 번째 시집 서점 매대 홍보광고

## 2021구상숏대문학상 당선작\_한승완

## 벚꽃 백신

벚나무에 봄비가 찾아와 원료를 주입시키면  
 벚나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백신을 만들 채  
 비를 한다  
 살갗에 생채기를 내어 꽃봉오리를 띄운다  
 아기 벚꽃 앞이 살짝 고개를 내밀면 기다렸다  
 는 듯이  
 꽃샘바람이 불어와 방해를 하지만  
 굴하지 않고 벚나무는  
 뿌리부터 가지까지 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  
 가지 주사기에 아기 꽃을 채우고야 만다

긴 겨울이 지나고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희망의 시간이 찾아온다  
 아기 꽃이 고개를 가누기 시작하면  
 따스한 봄바람이 백신을 배송한다  
 가지 주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벚꽃 잎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나가는 자동차 위에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쉬고 있는 벤치 위에  
 한 잎씩 떨어지고

벚꽃이 닿을 때마다 사람들은 마냥 행복해진다  
 벚꽃 백신이 퍼져 나간 세상이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  
 벚나무는 초록 잎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긴 숙면을 취한다

## 한승완 대표작

## 감또개

화가는 날렵한 붓으로 알곶은 춘풍을 일으켰다  
 땃줄을 부여잡은 어린 감  
 본능도 품어 주지 못한 중력 법칙은  
 순사가 휘두르던 검마냥 날카로워  
 생이별을 자행했다

삼월의 첫날  
 언젠가 육일기에 고개 들지 못하고  
 숨죽이며 필력이던 태극기들이  
 오늘 아파트 베란다에서 구슬픈 숨바꼭질을 하  
 고 있다

화가는 소도록한 감또개 주검에  
 미색의 감꽃으로 습과 염을 한다  
 갈라진 붓끝으로 촘촘히 수의를 입힌다  
 떨어져 나간 새끼가 안쓰러운 감나무는  
 숨죽인 채 가지를 흔들며 조사를 읊는다  
 떨어진 감꽃들이 상여를 메자  
 화가는 흔들리는 가지에 못을 박듯  
 붓으로 피눈물을 찍어댄다

감또개는 그렇게 세월 속에 묻혔다  
 화가는 절규를 폭발하여 삭풍을 일으켰다  
 악착스런 모성이 부여잡은 까치밥도  
 서리가 내린 새벽이 오자 자취를 감췄다

화가도 어느 순간  
 양상한 가지만 뻗어 있는 감나무를  
 이젤에 남겨 놓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아름다운 청춘의 꽃 한 번 피워 보지 못한 채  
 위안부란 이름으로 환한 낮에 별이 되어 버린  
 소녀처럼

## 탱고를 추고 싶었다

개나리 피는 소리가 보이지 않았다  
 소나기 내리는 소리도 보이지 않았다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보이지  
 않았다  
 한겨울밤 차분히 내려오는 하얀 눈 소리도  
 보이지 않았다  
 일 년 사계절이 온통 어두움뿐이었다

아침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의 인사도  
 알지 못했다  
 태양이 뜨고 지는 하루의 그림자도  
 밤의 암흑과 다르지 않았다  
 새벽이 오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 떨어지는  
 모습도  
 아름답지 않았다  
 다만 찬란함이 느껴져 깜짝 놀라 몸짓이 살  
 며시 떨렸다

흰 지팡이 든 손에는  
 아무 소리도 보이지 않는다  
 일 년 삼백육십오 일이 차가웠다  
 하루하루가 같은 날인 것처럼 긴 터널이 계  
 속되었다  
 그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흰 지팡이 든 손으로 다가와 악수를 청한다  
 따뜻함이 보였다  
 환하게 웃는 얼굴도 보였다  
 입가에 핀 주름 화단에  
 온갖 꽃들의 향기가 보였다  
 나는 그 향기에 취해서 탱고를 추고 싶었다



미술

## 화가 가족 강내균의 저력



## 장애에 장애를 더하다

**미**술계에서는 강내균으로 알고 있지만 본명은 강호찬인 화가는 본인은 동양 화가이고, 부인은 도예가 그리고 딸은 조각가이다.

한 가족이 미술인인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활동 분야가 각기 다른 것이 흥미롭다. 이 화가 가족의 중심에 가장인 강내균이 있다.

그는 두 살 때 소아마비로 양하지에 장애를 갖게 되어 목발을 사용한다. 하지만 요즘은 전동휠체어로 이동한다. 보통 나이가 들면 목발에서 휠체어로 바꾸어 생활하는데 그는 화가이기에 팔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강내균은 장애인미술계에서는 아주 젊은 편이다. 1966년생으로 지금부터 한창 활동을 할 때이다.



## 미술을 전공으로

어린 시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주로 만화를 읽으며 캐릭터에 흥미를 느꼈지만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다. 부모님은 몸이 불편하니 약사가 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최선이라 판단하고 대학을 약대로 정해 주셨다. 하지만 내균은 약사로 평생을 산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고2 때 진로를 바꾸어 미대를 택하였다.

고2 말부터 서양화를 배웠다. 공부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흥미를 느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며 공부한 미대 입시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1년 재수를 하고 동국대학교 미대에 입학하였다. 그는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다.

대학생활은 활기찼다. 미술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소집단이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장애가 물리적인 제약을 주었지만 심리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목발을 짚고 통학하기도 힘든데 수업에 필요한 화구를 들고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3학년 때 소형차를 구입하여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다. 한창 장애인운전자들이 확산되고 있었던 때였다. 장애인 차량은 세금 면제도 되고, LPG 연료도 사용할 수 있었다. 자동차가 생기자 내균은 학교생활이 훨씬 편해졌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은 바로 연애 활동이었다.

### 대학 CC에서 부부로

동국대학교는 비탈이 많아서 비장애인 학생들도 짐을 들고 이동을 하려면 숨이 찰 정도이다. 내균은 과여학생들이 무거운 화구를 들고 학교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보면 차를 세우고 말했다.

“같이 가자.”

한동안 유행어였던 아타죽이다. 그런데 그 제안이 유독 한 여학생에게 집중되었다. 사랑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상진이란 동기동문인데 내균이 재수를 했기에 그녀는 한 살 아래였다. 1, 2학년 때는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을 정도로 무관심했었지만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늘 신중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균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남자로서의 호감으로 바뀌는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견고했다. 부모님의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들은 1995년 내균 스물아홉 살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화가 부부답게 백악미술관 전시실에서 동문들의 부러움 속에 CC(캠퍼스 커플)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





결혼을 한 내균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직업이 필요했다. 그래서 미술학원을 차렸다. 내균은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부인은 어린이를 가르쳤다. 입시학원과 어린이학원을 20년 동안 운영하였던 것이다. 한동안은 원생들이 많아서 호황을 누린 적도 있지만 대형 학원이 생기면서 작은 학원들은 문을 닫게 되었다.

학원을 접고 개인화실에서 개인 레슨을 한 적도 있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래도 학원을 하며 딸을 키울 수 있었다.

### 본격적인 창작 활동

학원을 접은 후 본격적으로 미술작업을 시작하였다. 학창 시절 학교 전시회를 준비할 때는 앉아서 할 수 없는 큰 작품은 목발을 짚고 일어서서 그릴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자 서서 작업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화선지를 바닥에 놓고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작은 작업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그림도 그리고, 작품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왔다가 그를 보고 말은 하지 않지만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이기도 한다.

그는 작품에 진한 블루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이 우울함, 외로움이라는 인간의 근원을 표현하고 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

강호찬(강내균) 작가의 그림을 굳이 현대 한국 채색화의 장르에 가둘 필요는 없다.

기존 한국화가 갖는 전통의 화면분할을 깨는 과감한 구도 편성이라든지, 전통의 요철기법이 아닌 빛의 움직임에 천착하는 입체표현, 더구나 채색화에서도 폭넓은 재료와의 새로운 융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령 ‘그믐달 걸린 저녁’을 보면 ‘여백의 미’보다는 파격적인, 그래서 오히려 역동적인 화면구성이 먼저 눈에 띈다. 다양한 명도와 채도로 시간을 화면에 담아내는데, 저녁 또는 새벽하늘의 푸른빛은 다양한 명도와 채도를 뚫고 정지된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 있게 만든다. 또한 강호찬 작가의 그림은 익숙한 주변의 풍경이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공통의 ‘고향의 향수’라는 공감대를 기본 모티브로 하여 시골 풍경 등이 많이 등장한다. 한국 채색화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한국화의 ‘모필’이 얼마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지 실험이 끝나지 않는다. 특히 짙거나 여린 블루(군청) 모노톤 계열의 색채를 주로 추출하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작가의 꿈은 늘 새로워지고 있다.





내균은 한국 채색화의 대가 박생광 화백(1904~1985)을 좋아한다. 박 화백은 한국 근대사의 풍랑 속에서도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으며,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 르 살롱전에 특별 초대돼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색채의 미술사이자 민족혼의 화가로 한국 채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상국립대 윤창술 교수는 경남일보(2021. 07. 22.)에 ‘이제부터 박생광 화백이다.’라며 박생광의 미술 세계를 높게 조명하고 있다. 내균도 한국 채색화에서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다.

노원정예작가전에 참여해서 알게 된 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화가였는데 장애인미술계 소식을 알려 주었다. 그래서 장애인미술협회에도 가입하게 되었고, JW학술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JW아트어워즈에 응모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장애가 있건 없건 화가들의 작품 활동의 본질은 똑같다고 강조한다. 다만 활동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제도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은 장애때문에 작품의 평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부인은 남양주시 별내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수강생들에게 도예를 가르치며 도예가로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고, 딸은 홍대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는 미래가 촉망받는 조각가이다.

서로의 작품에 대해 조언을 해 주며 서로 윈윈하고 있는 진정 예술인 가족인 것이다.

강내균은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작품을 구매하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도 붓을 든다.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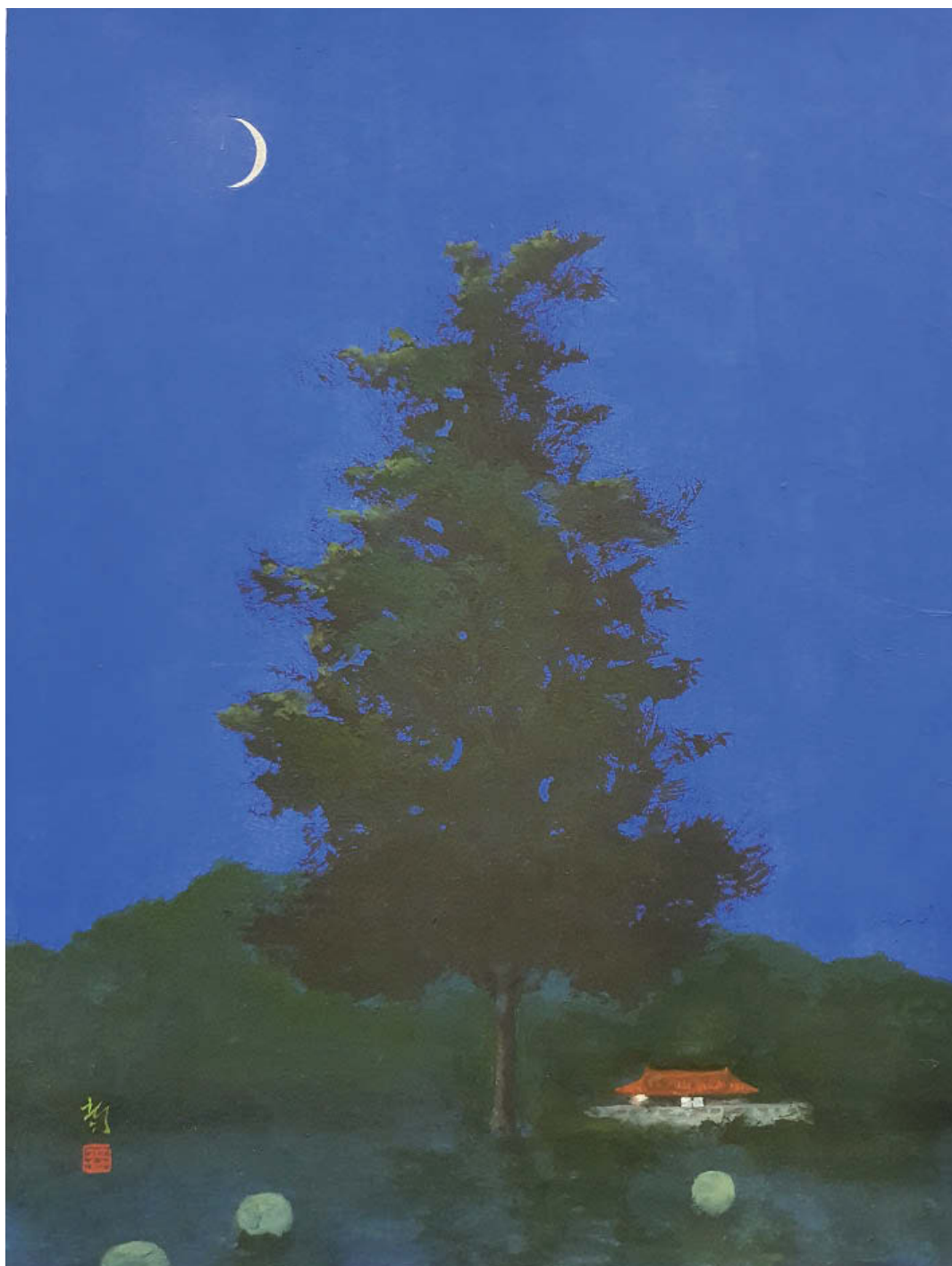
일몰







일월오봉도(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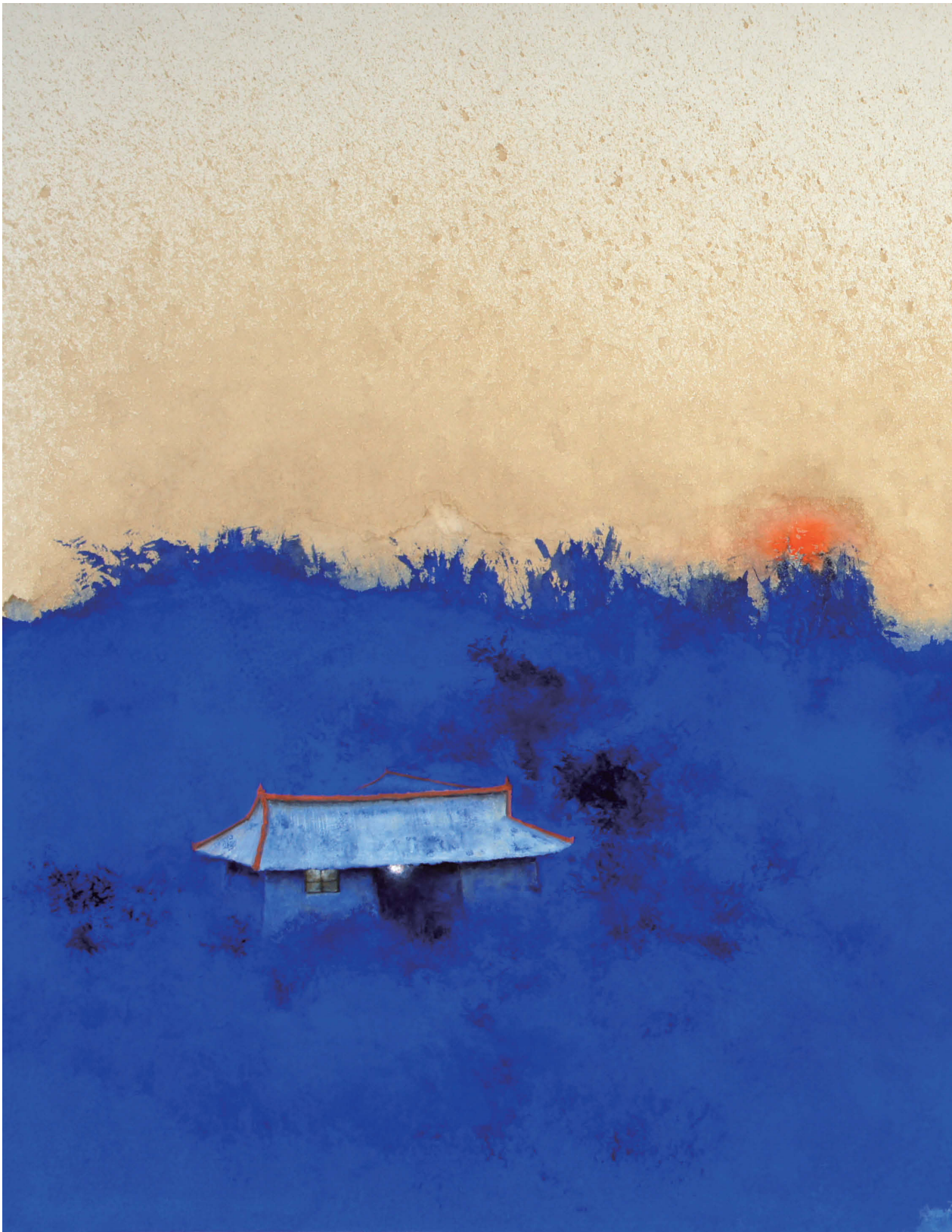


르네마그리트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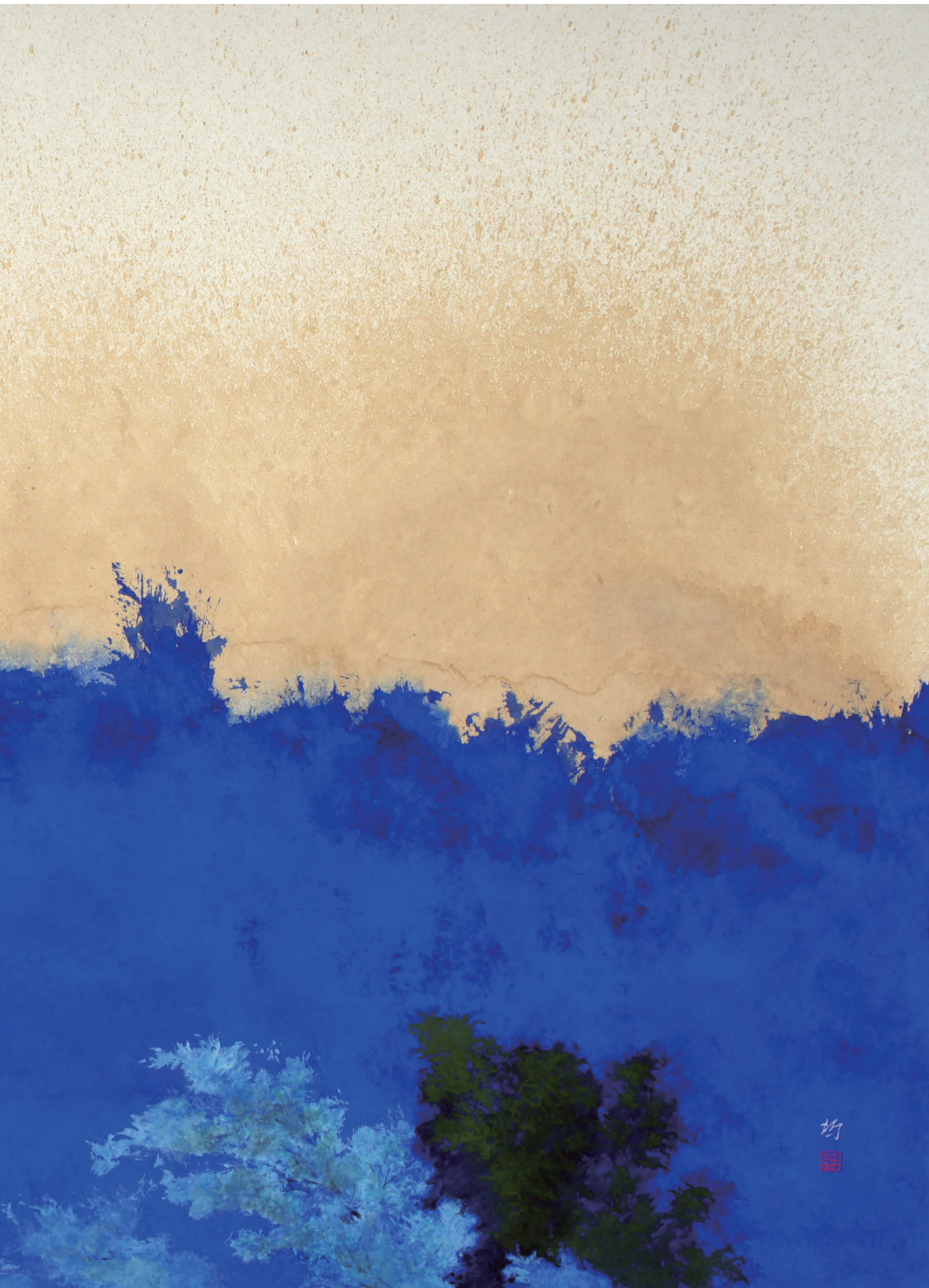


도시









시골집



산길





빨간 등대







겨울이미지



산동네

**강호찬(藝名: 강내군)**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한국화전공)

개인전 6회

초대전 7회(백악예술 2회, 도올, 파르타양극단, 공평아트홀, 노원문화예술 2회, KBS갤러리, 올미, 예당, 이음센터 2회)

국내외 단체전 200여 회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전(세종문화회관), 오스트리아 수교 100주년 기념전(운현궁미술관)

북서울시립미술관 개관초대전, 인덕대학교 초대전(2019, 이정미술관)

서울아카데미 정기전(2019, 예술의전당-한가람 2020, 인사아트프라자)

행복마루 2인초대전(2021, LG사이언스파크),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정기전(2020~현)

노원미협 정기전(13화~현), 한국미협 정기전(1992~현)

한일교류 정기전(2013~2019)-조선일보미술관, 고베, 오사카, 서울시립미술관, 홍익대미술관

작품 소장: 파르타양극단(파리), 계룡사(거제), 카이스트(대전), 동국대학병원(일산), 노원구청, w중외제약(본사), 효성그룹(본사)

한국미술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강미술협회, 노원미술협회, 서울아카데미회,

한국장애인미술협회, 21dCAA회 회원

음악

---

Soprano 강유경의  
거위의 꿈

---





### 천천히 어두워지는 세상 속으로

**강**유경은 어릴 적부터 성악을 전공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음악과 무대에서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 중창단, 어린이합창단, 청소년합창단 활동을 하며 뮤지컬 배우, 오페라 가수, 성악가 등을 꿈꾸며 자랐다.

어려움 모르고 지내던 어느 날 눈에 이상을 느꼈다. 원래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지만 눈에 질병이 생길줄은 몰랐다. 유경은 열일곱 살 때 희귀난치성 ‘망막모세혈관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망막 혈관에 생긴 암이라고 설명하면서 눈에 핵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으니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눈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공부하고 웃고 떠들며 평범한 여고생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지랑이가 눈앞에서 어른거리더니 어느 날은 캠프파이어 불을 보듯이 물체들이 흔들렸다. 그러다 캠프파이어 불이 꺼진 것처럼 어두워졌다. 그래서 길을 가다 쓰러져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수술을 하고 좋아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유경은 일반전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입학하였다. 그 무렵 병의 진행으로 계속 시력이 저하되더니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 그래도 오른쪽 눈이 보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었다.

그러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대학 4학년 때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악보를 보기가 어려웠다. 악보를 확대해서 오른쪽 눈에 가까이 대고 한 마디씩 보고 암기해서 공부를 했다.

진로를 고민하는 4학년 때 그녀는 성악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코스인 유학을 생





각하고 있었지만 교수님은 그녀에게 건강이 먼저라며 그녀와는 진로 상담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유경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2014년 최우수 성적으로 음대를 졸업 한 후 그녀는 1년을 그냥 보내야 했다. 건강을 생각한다고 시력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어서 1년을 허비한 것이다. 곧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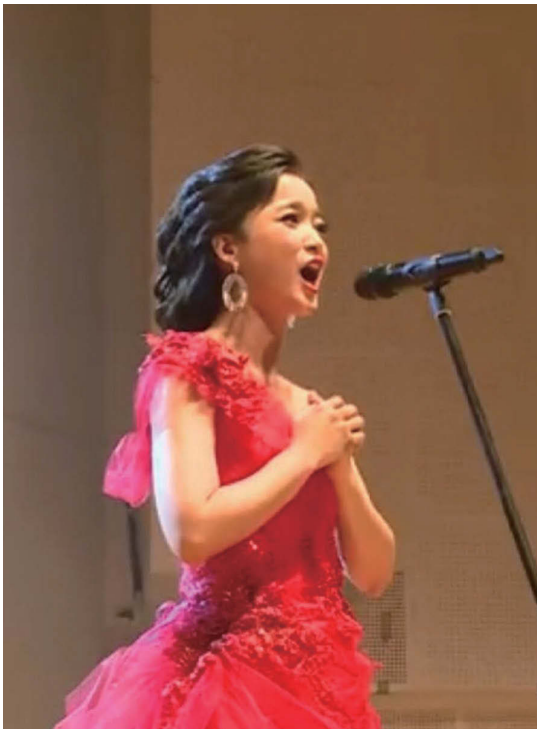
### 무대가 공포가 되다

유경은 소프라노 성악가로 무대에 섰을 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력에 장애가 생기고 나서도 학교 공연은 물론이고 극단 〈오디〉 단원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노래도 잘 하지만 연기도 잘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극에서 주연배우인 유치원 교사 역을 맡아 노래도 가르치고 책을 읽어 주는 연기를 했는데 외워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눈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표시내지 않으려고 매순간 긴장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피사체가 보이지 않아서 엉뚱한 곳으로 손을 뻗치기도 하고 객석으로 내려가서 어린이 관객을 데리고 올라올 때 극의 내용에 맞지 않은 나이의 관객을 선택하기도 해서 공연의 흐름을 깨는 경우도 있었다.

어린이 옆에 가서 소통하는 반응을 보일 때도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소품에 걸려 넘어지거나 무대에서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나서 더 이상 무대에 서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하여 연출가에게 시각장애를 털어놓았을 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 보는 게 어때?’라고 힘을 실어 주었다. 모든 스태프들에게 강유경의 장애가 알려지자 오히려 스태프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예전에는 자기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실수를 한다는 오해로 사이가 멀었던 스태프들이 서로 나서서 유경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형광 테이프를 유도선을 바닥에 붙여 주기도 하고 무대가 암전이 되면 꼼짝을 못하니까 블루 아웃으로 처리해 주었다.





## 눈에서 빛이 사라지다

혼자 다니기 위험할 정도가 되자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기로 했다. 장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 사업을 하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곳에 점역교정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음악교정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는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 자격증으로 2019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입사하여 현재는 시각장애가 있는 음악인들이 원하는 곡을 점자 악보로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2020년, 그나마 버티고 있던 오른쪽 눈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수술을 했음에도 결국 모든 시력을 잃고 미세한 빛만 감지할 정도의 암흑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한동안은 매일 후회를 했다. 이렇게 빛이 빨리 사라질 줄 알았으면 보고 싶은 것을 실컷 보고, 여행도 다니고, 원없이 해 보고 싶은 것을 다 해 볼 걸 하는 아쉬움으로 시간을 보냈다.

솔직히 그녀는 아예 안 보이는 장애가 설마 자기에게 닥칠 줄 몰랐다. 지금도 최악인데 더 최악이 되랴 싶었다. 처음에 수술을 하고 5년 정도는 진행이 멈추었기 때문에 또다시 멈추리라 믿고 싶었던 것이다.

어둠 속에 갇히자 처음에는 공포스러웠다. 보이는 세상을 살다가 안 보이는 세상으로 들어가니 일어서는 것조차 무서웠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생겼다.

한동안 음악 활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합창단, 중창단 활동으로 장애 인식개선 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다. 무엇보다 2020년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에 출전하여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 장애인예술인들이 그렇게 많은 줄도 처음 알았고, 실력이 너무 대단해서 놀랐다. 모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예술인 그 자체였다. 복지관에서 스페셜K에 나가 상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장애인예술인을 보고 궁금해서 도전을 했





던 것인데 스페셜K가 큰 동기 부여가 되었다.

예전에는 무대에 설 때 시각장애를 숨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시각장애가 있음을 밝히며 당당히 장애예술인으로서의 도전을 이어 가고 있다.

한때는 시각장애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시각장애인 소프라노 강유경이 자신의 정체성이다.

무대에 등퇴장할 때 안내자의 도움을 받고 노래를 부를 때 발을 떼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제스처를 하다가 방향을 잃고 측면을 바라보고 노래를 하고 엉뚱한 곳에 인사를 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스탠드 마이크 앞에서 인사를 할 때는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 인사를 한다. 안내자가 세워 준 자세에서 인사를 하다가 마이크에 부딪힌 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가지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노래만 부르는 성악 외에 연기를 해야 하는 오페라나 뮤지컬 무대에 설 수도 있다는 꿈을 꾸고 있다.

이제 갓 서른인 강유경(1990년생)의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다. 

#### 강유경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대전극동방송전속 어린이 합창단 단원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단원

2011 영국왕립음악원 & 숙명여자대학교 RAM Festival 협연

2012 숙명여자대학교 제12회 정기오페라 〈Cosi Fan Tutte〉 주역 Despina역 출연

2013 제72회 숙명여자대학교 정기연주회 협연

2017 대전시립교향악단 신인 연주자 발굴 시리즈 '영 비르투오조 데뷔 콘서트' 협연

2018 한국음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제29회 한발 신인 음악회 출연

극단 〈오디〉 주연 배우 〈우리 엄마〉,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미술관에 간 율리〉 출연

2020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상





대중예술

---

만능 엔터테이너  
김리후

---



배우 김리후<sup>(31)</sup>는 장애등급제 폐지 전에는 2급이었다. 청각장애인 2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현 제도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sup>(중증)</sup>이다.

수어<sup>(手語)</sup>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지만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는 구화<sup>(口話)</sup>도 한다.

그는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비롯해 7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국립서울농학교 졸업 후 본인과 연관 깊은 농 문화 자체를 알고자 한국복지대학교 수어통역학과에 입학했고, 서울수어전문교육원에도 다녔다.

얼굴이 알려지는 일을 하다 보니 청각장애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농문화나 역사, 언어<sup>(수어)</sup>를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며 농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 모델 & 영화배우

영화 속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몇몇 보였다. 스크린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배우라는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닫혀 있었다.

2000년대 중후반 무렵 가수 하리수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히고 방송활동을 시작하였고, 배우 홍석천도 커밍아웃을 하고 당당히 대중 앞에 서는 것을 보며 그도 청각장애인이라는 편견과 차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되었다.

연기 공부를 하고 싶어 연기학원을 알아보았지만 수강료가 비쌌다. 금전적인 부담이 컸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청각장애인이라서 받아 주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혼자서 연기 연습을 했다.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보면서 감정이입 연습을 했다. 캐릭터 분석도 열심히 했다. 저 캐릭터는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한국 영화에는 자막이 없어서 자막이 있는 일본 드라마를 자주 봤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농 배우가 많아서 관심을 갖게 되자 자연스레 일본어를 독학했다. 자막이 있는 한국 영화가 제작 되면서 우리 영화도 많이 봤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가수 보아의 팬이었다. 보아는 발성이 탁월해 고음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래서 〈아틀란티스 소녀〉 춤을 따라 뛴는데 사람들이 잘 춘다고 칭찬을 하여 인터넷에 올렸다. 그 사진을 본 방송작가의 섭외로 TV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소년 보아’로 출연을 하였다. 방송에서 그를 직접 만난 작가는 모델을 해도 되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드디어 작가의 권유로 사진 모델을 하게 되었다. 피팅 모델로 제품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연예인을 상품이라고 비유한다면 장애가 있는 연예인은 상품에 하자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으며, 상품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청각장애에도 여러 유형이 있음에도 그를 직접 만나기도 전에 본인은 수어를 모른다면서 거절하는 연예 관계자들도 많았다. 그 과정에서 귀로 듣고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강요하는 비장애인 연예 관계자들과 또 다른 하나의 문화를 상징하는 수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비난하는 농인들 사이에서 그는 많은 수난을 겪었다.

2009년 12월 김조광수 감독님에게 연락을 받았다. 모델 활동 중 찍은 사진을 보았다고 했다. 미팅 후 바로 촬영 날짜를 잡았다. 믿기지 않았다. ‘저 출연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 ‘그렇다.’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다. 2010년 데뷔작 단편영화 〈사랑은 100℃〉에서 청각 장애인인 사춘기 소년 민수 역을 연기했다. 이후 2014년 강지숙 감독의 단편영화 〈미드나잇 썸〉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청각장애인 남매 중 오빠 병우 역을 맡았다. 배우 류준열 씨와 함께 출연했다.

그 후에는 일본 소속 연예인으로 계약을 했으며, 미국 측에서도 함께 오디션을 알아보던 중 코로나 사태로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모델 활동



〈미드나잇 썸〉



〈사랑은 100도씨〉



농아방송



## 수어뉴스 앵커 & 크리에이터

2012년부터 한국농아방송 수어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수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농인들을 위한 일이다. 대본에 따라 금방 끝날 때도 있고 오래 걸릴 때도 있다. 관용어나 사자성어 같은 어려운 말도 농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로 번역한다. 충분히 연습하고 암기한 후 촬영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수어영상도서관 촬영도 하고 있다. 농아동, 농청소년들을 위해 책 내용을 수어로 번안해 촬영하는 일이다. 보는 대상들의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 표정 연기에 더 신경 쓰고 있다.

2019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 <LIHOO TV(리후TV)> 1인방송을 시작했다. 농문화, 역사, 수어에 대한 영상을 주로 찍는다.

노래 <루돌프 시슴코>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 가사에 맞게 수어로 표현한 영상이 가장 인기였다. 조회수가 1만 회가 넘었다. 수어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 요즘 1인방송을 많이 하는데 농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농인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바로잡으며, 농인들에게 농학교에서도 알려 주지 않는 농문화와 역사들을 알려 주어 그들이 병리적적 존재인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농인이라는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는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다.

## 국제통역 활동

한국농아청년회는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단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35세의 농청년들이 모여 권리 보장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5대 한국농아청년회 국제이사를 맡았다.

세계농인연맹(WFD · World Federation of the Deaf), 세계농인연맹청년회(WFDYS · World Federation of the Deaf Youth Camp) 관련 국제 교류와 통번역을 담당했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농인대회(World Congress of the Deaf)가 2023년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국내 농인들에게 국제수어를 비롯한 여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농아청년회 국제이사

농인 올림픽인 2019 발텔리나-발치아벤나 동계 데플림픽(Deaflympics) 한국 대표팀 국제수화 통역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2박 3일이 소요됐던 47회 농인스포츠국제위원회(ICSD · International Committee of Sports for the Deaf) 총회에서도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회장단을 위해 영어/국제수화를 한국어/한국수어로 통역을 했다.

### 가장 무서운 것은 편견

어릴 때 일반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 선생님께서 친구들이 떠들 때 ‘리후야, 애들한테 보청기 빌려줘. 말귀 못 알아듣네.’ 또 ‘이번 시험에서 리후보다 성적 나쁜 애들은 혼난다. 귀 안 들리는 리후도 열심히 하는데 너넨 뭐하니.’와 같은 말들은 그에게 상처가 되었다.

배우로 활동하면서 장애를 비하하는 악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의연하게 넘기려고 한다. 일일이 상대 해가며 감정을 소비할 시간에 스스로를 챙기는 편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를 힘들게 한 건 오히려 비장애인들의 잘못된 배려였다. 상대 배우와의 감정 교환이 중요한 연기자에게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제약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애인 배우가 장애인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일상 생활 중에 수없이 겪는 차별과 편견을 연기하기 때문에 감정 잡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오히려 표현을 더 잘 한다.

제작진이 김리후 배우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청기를 끼도록 했는데 오히려 불편했다. “극 중 엄마가 저를 부르는데 듣지 못하는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야 하는데 보청기 때문에 너무 잘 들려서 못 듣는 척 연기하기 힘들었죠. 저를 배려하겠다는 준비한 보청기지만, 결국은 비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했던 거죠. 어중간한 도움을 주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는 배우 생활을 지속할수록 답답한 마음이 커진다. 미



국 할리우드에서는 ‘장애인 히어로’, ‘흑인 인어공주’가 등장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 한국 영화계에서는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핸디캡을 강점으로 만들면

그는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길을 지나갈 때 광고 문구를 보면 수어로 어떻게 잘 표현할지 고민한다. 또 뉴스를 꼭 챙겨 본다. 영어, 일본어 뉴스도 본다. 이는 더 넓은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한국농아방송을 진행할 때도 이미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수어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유튜브 방송의 좋은 소재를 찾을 수도 있고, 연기 공부도 된다.

김리후는 배우로서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싶다. 장애인은 왜 마냥 착하고 불쌍하게만 묘사돼야 하는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장애인도 자기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자연스러운 인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수퍼 히어로, 또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악당 연기를 하고 싶어요. 장애인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요?”

사람들에게 농인의 문화를 알리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싶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썼었고, 현재도 여러 작품들을 쓰고 있다. 그중 몇 시나리오는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 작품화를 대기 중인 상태로 계약상 먼저 밝힐 수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캐릭터나 감동 장치로서의 캐릭터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또 농아동과 청소년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엘사와 캡틴 마블로 인해 많은 여자아이들이 여성도 하나의 인격으로서 주도적인 강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블랙팬서로 인해 많은 흑인들이 히어로로 현실에서도 자리잡은 것처럼 본인의 존재 자체를 더 널리 알려 농인들에게 긍정적인 꿈과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해 주고 싶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픽션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따로 내보내는 것처럼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다. 그렇기에 보다 더 많은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연기하는 농인이나 장애인들의 모습이 많이 방영됐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희망 소생술이 필요해





최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오늘날 유례 없는 감염병으로 인간은 절망이 아니라 무망(無望, hopelessness) 즉 희망을 만들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입바람을 불어서라도 불씨를 살리는 희망 소생술이다. 아주 짧고, 매우 쉽게 그리고 공손히 설득시킬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 찾기를 시작한다.

“지금 막 그림을 시작한 최정아의 꽃 작품으로 단장하여 더욱 상상해진 메시지를 팝니다.”

## 1. 정말 가난한 사람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산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라구요  
 우리가 정말 슬퍼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잃은 것이라고 했죠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유칼립투스  
 ©최정아

## 2. 산다는 것은 보물 찾기

산다는 것은 보물 찾기와 같다고 합니다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행운을 찾는 것이 삶인데요  
우리는 행운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손에 행운이 쥐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숨어 있는 보물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해요  
행운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보물 찾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 3. 눈물과 땀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씻어지지 않는 슬픔은 없구요  
 땀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도 없다는 건데요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지요  
 눈물은 사람을 위로하고  
 땀은 삶에 대한 보답을 해 주니까요  
 눈물과 땀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루메리아  
 ©최정아

#### 4. 걱정을 없애는 방법



카네기가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1단계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2단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3단계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4단계는 언제 시작할 것인가를

차례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펼쳐가다 보면

걱정이 사라진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 5. 화는 행복을 빼앗는다

1분 동안 화가 나 있으면  
1분 동안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을 놓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행복해지려면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겠지요



장미  
©최정아

## 6. 진짜 부자는 마음의 집이 넓은 사람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는 가짜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진짜 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호화로운 것이 아니라고  
감싸 주고 사랑해 주는 마음의 집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마음의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양심이 헐벗었으면 가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마음의 집부터 마련하구요  
옷치장보다는 양심의 옷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해바라기  
©최정아



수국  
©최정아

## 7. 불행은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

불행은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꿈과 현실 사이를  
 좁혀야 합니다  
 실현될 수 있는 꿈을 갖고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래서 꿈이 곧 현실이 되면  
 정말 정말 행복하겠죠 







번째

## 변화하다

「E美지」 세 번째 목표인 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으로  
사회 변화라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E美지  
아름다운 열매



##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 다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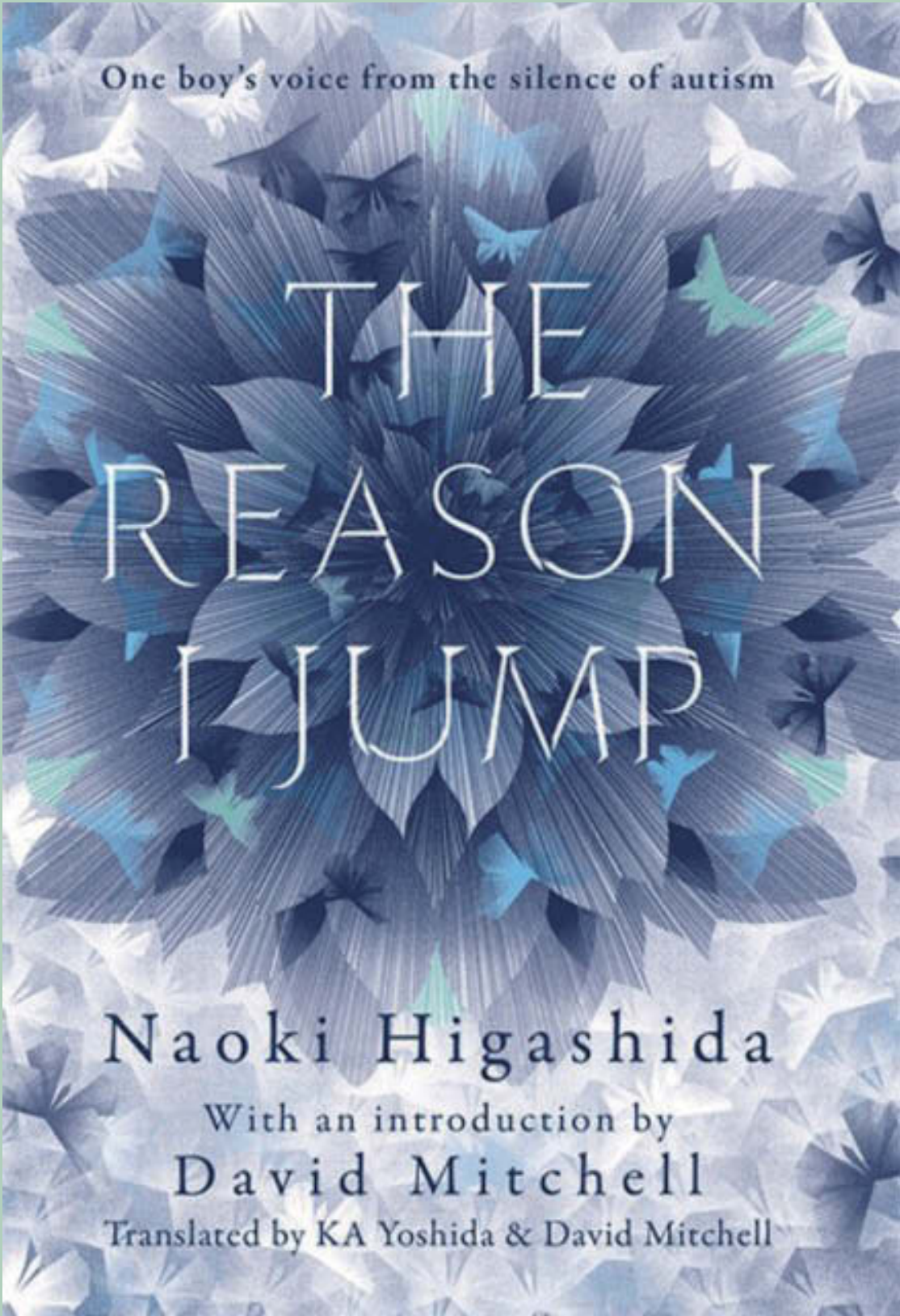
- 다큐 영화 <내가 펄쩍펄쩍 뛰는 이유>(The Reason I Jump)

김 현 식(대중문화평론가)

영화 <인셉션>, <다크 나이트>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이 기획과 제작, 각본을 맡았기 때문인가, <맨 오브 스틸>(2013)은 달랐다. 어린 시절 클라크(수퍼맨)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다. 빛은 눈앞에서 산란되었고, 소리는 귀에서 크게 들려 고통스럽게 웅웅거렸다. 수퍼맨이 우월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초인적인 모습으로 학창 시절을 했을 것이라는 상상과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수퍼맨은 오히려 장애인이었고 무엇보다 장애인 수퍼맨의 시선에서 세상의 빛과 소리를 영상과 사운드 효과를 통해서 묘사해 준 점이 남달랐다. <케이 팩스>,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지구아빠 화성아이> 등에서도 주인공은 자신들이 초능력을 지닌 외계인이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눈과 귀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전혀 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장애를 다루는 많은 영화들이 장애인을 외부의 시선으로 스케치하거나 관찰할 뿐이다. 정작 배우에 대한 평가도 특정 장애 유형의 특징을 정확하고 잘 재현했는지에 따라 좌우되고는 한다. 그것은 길으로 드러나는 행태에 대한 모사(模寫)일 뿐이다.

<맨 오브 스틸>보다 더 훌륭한 영화가 있다. 다큐 영화 <내가 펄쩍펄쩍 뛰는 이유>(The Reason I Jump,





One boy's voice from the silence of autism

# THE REASON I JUMP

Naoki Higashida

With an introduction by

David Mitchell

Translated by KA Yoshida & David Mitchell

2020)는 외부 시선에 따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치중하지 않는다. 발달장애 아동들의 좀 다른 신경 작동과 인지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일단 비언어성 자폐 스펙트럼 장애(Nonspeaking Autism Spectrum Disorder)를 가진 4개국 다섯 명 아이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 영화가 가능했던 것은 한 권의 책에서 비롯됐다. 발달장애인 나오키 히가시다(Naoki Higashida)가 13세에 쓴 책이 바로 그것이다. “나의 큰 희망은 이 책을 쓰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방식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용기 있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인지·심리적 현상들을 숨김없이 설명했다는 점에서 탁월하고 크게 존중할 만하다. 그는 “말할 수 없다고 해서 할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not being able to speak does not mean there is nothing to say.)라고 말한다. 그렇다, 정말 맞는 말이다. 나오키가 13세 때 저술한 비언어적 자폐증의 경험을 영화 제작자 제리 로트웰(Jerry Rothwell)이 발달장애 자폐 인식 과정을 영화적으로 근사치에 가깝게 재상상하여 연출하고자 했다.

그럼 왜 감독은 이러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 로크웰(Rothwell)은 이 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해 온 말을 하지 못하는 자폐증에 대해 정말 많은 이해를 하게 해 주었다.”라고 했다. 그는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로 이해하기 힘든 신경적 경험에 대한 ‘지도 제작’이라고 했다. 자신의 아들을 염두할 때 매우 훌륭한 가이드라인 즉 길라잡이 지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사운드 디자이너 니키 라이언(Nick Ryan)과 촬영 감





독 루벤 우딘(Ruben Woodin Dechamps)과 함께 비언어적 자폐증을 가진 5명의 일상적인 경험을 감각 압도, 세부적인 극도의 강도, 불안정한 기억의 유동성, 신경성 반응과 교차를 발달장애의 시선으로 그린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 5명의 참가자는 자폐증 경험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매우 다른 지식과 정보, 수단 능력에 도전 과제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도 노이다(Noida)의 젊은 여성 암릿(Amrit)은 세세한 사항, 표현 및 혼란 장면의 축적과 배열을 그녀의 마음에서 추상 회화의 다작 배열로 바꾼다. 조씨(Joss)는 빛(진정)이든 감정(탈선)이든 감각이 압도하는 기쁨과 공포를 모두 보여 준다. 초특이적 기억 즉 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된 2세 때부터의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있는데 히가시다(Higashida)의 설명과 연결된다. “시간은 명확한 경계가 없는 연속적인 것이므로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선처럼 연속적으로 배열되는데 내 기억은 점들의 웅덩이와 같습니다. 기억은 모두 흩어져 있고 올바른 순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인 벤과 엠마는 알파벳 글자판을 가리키며 이뤄지는 진일보한 홈 스쿨링을 하는데 교육 또는 능력의 기본 과정에서 신경 생성과 인식 및 내포성에 구체적인 요구를 보여 준다. 이렇게 같은 범주에 있어서도 차이와 다름은 이렇게 엄존하는 현실이고 이는 세심히 존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섯 명 이전에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그들이 점프하는 이유는 자폐인들은 행복과 슬픔 같은 감정을 몸 전체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점프할 때 몸을 잘 느끼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일단 빨리 망각을 하기 때문이다. 자폐인들이 익숙한 말들을 하면 그것이 즐거운 공잡기 게임처럼 느껴진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버릇이 없어서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망각하기 때문이다. 질문에 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말의 홍수 속에서 할말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오히려 이다. 자폐인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의 신경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혼자 지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폐인들은 같이 어울리며 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항상 마구 뛰어다니는 이유는 마음이 항상 이리저리 흔들려서이고 마구 뛰어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다. 달리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물체를 볼 때 비장애인은 우선 그 전체를 보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보지만 자폐인들은 세부적인 것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전체 모습이 보인다. 무슨 부분을 먼저 보느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색이 화려하거나 모양이 시선을 잡아끌 때, 다른 것엔 집중할 수가 없다.

‘내가 펄쩍펄쩍 뛰는 이유’는 이러한 각각의 차이점이 그들 입장에서 반영된 영화이다. 로트웰(Rothwell) 감독은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자폐인들에 대한 전형적인 상상을 깨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따로 떼어 낸다. 또한 로트웰 감독은 ‘영화가 사람들에게 히가시다의 책에 담긴 다른 비언어적 자폐인의 일반적으로 무시되는 목소리를 지적할 수 있다면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와 표현하는 법이 다르다고 그들의 생각이나 세계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화의 전복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김 현 식

문화평론가.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 박경리토지문화관 외래교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카이스트미래세대행복위원회 위원. 제40회 방송대상 심사위원.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장애학 전공) '장애재현에서의 이슈' 출강. 저서 『비온드 블랙』, 『세종, 소통의 리더십』, 『영화와 예술로 보는 장애인복지』 등.

## 딱 나 같은 딸 <sup>1화</sup>

김뜰은 『E美지』 15호(2020, 봄)에 ‘웹드라마작가 84년생 김뜰의 마법’으로 소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본명은 김민주로 에세이 『뛰어라 내 다리야 이 세상 끝까지』(2005)를 펴낸 바 있다. 2018년 오픈(O’PEN) 2기 작가로 선정되어 예명 김뜰로 웹소설 〈어쩌다 계약 결혼〉(2019), 웹드라마 〈딱 나 같은 딸〉(2019)을 시작으로 집필 활동이 많아져서 얼마 전 대구에서 서울 근교로 이사를 왔다. 웹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김뜰 작 〈딱 나 같은 딸〉 시나리오를 연재한다.

제작사/픽고, 기획/이민지, 연출/고낙균, PD/김수민

출연/이은주, 정민규, 김정은, 박성남, 이명준

- 형식 : 웹드라마 시즌1, 5분×6부작<sup>(2019)</sup>
- 컨셉 : 동영상 채널시장의 블루오션 중장년층과 레드오션 1924<sup>(19세~24세)</sup> 세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감×100, 감동×100 시즌제 웹드라마
- 로그라인 : 서로를 ‘여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돌싱 엄마와 고3 딸내미의 좌충우돌 일상 소동기, 그 첫 번째 시즌
- 등장인물 :

한정숙/여, 46세. 보험설계사 휴직 중. 가정주부

딸이 열 살 되던 해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됐다. 능력 하나 없이 속세가 싫다며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어 버린 남편 때문에 위자료는커녕 양육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식당 서빙, 설거지, 공장 일, 주유소 알바 등등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하며 딸을 키웠다. 보험설계사로 일을 한 지는 만 4년이 다 되어 간다. 몸이 예전같지 않아 팔다리가 쭈시고 아파 휴직계를 내고 쉬는 중이다. 오래간만에 집에서 살림만 하며 지내다 보니 딸내미와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말다툼도 많아졌다. 과자 사먹게 천 원만 달라고 하던 꼬맹이가 머리 좀 꺾다고 대들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맨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영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 이아영/여, 19세, 정숙의 딸

어릴 때부터 일하느라 맨날 집을 비우는 엄마 때문에 열 살에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스스로를 챙기며 자랐다. 엄마와 못 나눈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나누다 보니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무리에 끼게 되었고,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을 만큼의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데도 엄마는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이 없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성인이 되니까 독립해서 따로 나가 살 거라고 버르고 있는데,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한 엄마가 갑자기 엄마 코스프레를 하고 나섰다. 게다가 엄마한테 남자까지 생긴 것 같다.

“우리가 언제 서로 신경이나 쓰고 살았어? 각자 살자, 엄마.”

### 고남훈/남, 50세, 00은행 지점장

00은행에 새로 발령받아 온 지점장. 고객으로 들렸던 정숙을 보고 단번에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첫사랑 동생임을 알아본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을 했고, 하나 있는 아들놈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혼자 살고 있다. 외로웠던 참에 우연히 다시 만난 첫사랑에 가슴이 설레고 적극적으로 정숙에게 대쉬를 한다.

### 박지민/남, 21세, 편의점 알바생

아영이 짝사랑 중인 대학생 오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일하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 가꾸기에 더 열심인 날라리 알바생이다. 아영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눈치채고, 사고 싶은 게 있다느니,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느니 하는 말로 돈을 뜯는 등 이용을 해먹는다.

### 조연호/남, 19세, 아영의 남사친. 아영과 유치원 때부터 친구인 아영의 대나무숲.



## 제1화(섬네일-딸에게 원망 폭격당한 썬)

### 1. 공원 벤치, 낮.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고객1과 대화를 나누는 중인 정숙.  
결재서류파일에 보험설명지를 올려놓고 빨간펜으로 중요 문구 동그라미를 쳐가며,  
보험상품 설명을 하고 있는 정숙.  
점프. 고객1에게 신청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네주고 일어나서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한 후, 묵직한 서류가방을 챙겨들고, 고객1과 헤어져서 발길을 옮기는 정숙.

### 2. 공원 일각, 낮.

서류가방이 무거워 들쭉날쭉 반동을 주어 자꾸만 다시 들어보는 정숙.  
그렇게 무릎이 아파 한쪽 다리를 절며 걷고 있던 정숙,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다. 한숨을 푸욱 내쉬며 아픈 무릎을 주먹으로 툭툭치며  
통증에 인상을 찌푸리는 정숙. 다시 일어나려는데 코피가 후두둑 떨어진다.  
깜짝 놀라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코를 쥐어 틀어막고 고개를 위로 살짝 드는 정숙.  
이 나이에 이게 무슨 팔자인가 싶어 피식 헛웃음이 나오는 정숙.

### 3. 다른 날 고층빌딩 건물 입구, 낮.

제법 큼지막한 상자에 사무용 소지품을 챙겨들고 빌딩에서 나오는 정숙.  
정숙, 후련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한숨을 몰아쉬고,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겨 걸어가는 뒷모습.

정숙(NA) 9년 전 돌싱이 되고, 먹고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 유일하게 정규직으로  
일했던 5년간 하루 평균 수면시간 4시간. 중년이 되니 몸이 버텨나질 않아 휴  
직계를 내고, 평범한 엄마, 가정주부가 되려 한다.

#### 4. 다른 날 정숙의 집 부엌, 낮.

편하게 늘어진 옷차림에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 중인 정숙.  
아영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가져다 방으로 들어가며 정숙을 힐끔 쳐다보고,  
정숙이 아영에게 뭔가 말을 건네려 하는데 행하니 정숙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리는 아영.

#### 5. 정숙의 집 거실, 낮.

청소기를 밀며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 정숙. 거실 가운데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영. 정숙이 청소기로 아영의 주위를 밀며 아영에게 장난을 쳐보는데,  
아영, ‘왜 이래?’ 하는 얼굴로 정색하며 정숙을 쳐다보더니 벌떡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꽁 닫아 버린다. 빨쫘해져서 입술 빼죽거리며 다시 청소기 미는 정숙.

정숙           (빼죽거리며 구시렁) 기집애… 거 되게 튕겨내네. 아무리 오랜만에 같이 있는 거 어색  
한 엄마라지만… 돈 천 원만, 천 원만 한 게 엇그제던 꼬맹이가… 찻.

#### 6. 정숙의 집 욕실, 낮.

정숙, 쪼그리고 앉아서 손빨래를 열심히 하고 있다.  
손목이 시큼시큼 아파서 손목운동을 간간히 해 가며 빨래 중인데, 위에서 뭔가  
빨랫감이 툭 떨어진다. 들춰 보면 아영의 브래지어 2개와 팬티 3장이다.  
정숙, 고개를 들어 옆으로 돌아보면 욕실 앞에 아영이 서 있다.

정숙           뭔데? 빨라고 던져 놓는 거냐, 지금?

아영           (심드렁하게) 어.

정숙           (잔소리) 너 지금 나이가 몇 개냐? 무려 열아홉이다, 열아홉.  
내년이면 성인이고, 속옷 정도는 니가 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영           (비아냥) 품, 뭐래? 나 열 살 때부터 속옷빨래 내가 했거든?



정숙 (돌아보며) 뭐?

아영 나 열 살 초딩 때부터 내 속옷 내가 다 빨았다고요~ 속옷만 빨았게? 밥하고 청소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밖으로, 좀 나돌으셨어야지~ 요번에 집에 있는 김에 내 속옷 좀 빨아 주면 어디가 덧나?

정숙 내가 뭐 나 좋으라고 밖으로 나돌았어? 다 너 하나 먹여 살리고 키워 보겠다고 썩어 빠지게 돈 벌러 다닌 거 아니야. 자식 키워 봐야 아무 짝에 쓸모없다더니...

아영 어후, 저놈에 레파토리, 또 시작이지. 완전 지겨워. 또 날 위해서 그런 거라는 말이지? 근데 난 돈보다 엄마가 더 필요했거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정숙 돈이 필요하지 엄마가 왜 필요한데? 손가락 빨고 살면서 엄마랑 썩썩 할일 있어?

아영 내가 생각하면 아직도 어이없는 기억이 뭔지 알아?

정숙 (보는)

아영 나 처음 생리 터졌던 날.

정숙 !!!!

아영 학교에서 수업으로 이론만 배웠지 실제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내 몸에서 이상한 피는 계속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당최 모르겠는데, 집에 같은 여자라고 물어볼 엄마라는 사람은 없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정숙 ..... .

아영 어떤 애들은 첫 생리한 날, 축하파티를 했다는니, 엄마가 손편지를 써 줬다는니 하드만... 그때 이후로 난 엄마한테 기대나 희망 같은 거 싹 다 접었다. 아... 우리는 각개전투하는 사이구나.

정숙 …앞으로는 내가 좀 쉬니까 너한테 신경을 좀 써 줄…(하는데)

아영 (말 자르며) 우리가 언제 서로 신경쓰고 살았어?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그냥 살던대로 각자 살자. 응? 알았지?

정숙이 뭔가 말을 더 하고 싶은데, 아영이 돌아서서 제 방으로 행하니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다. 욕하는 마음에 욕실에서 나와 아영을 따라나가고….

## 7. 정숙의 집/아영의 방 문앞, 낮.

정숙, 닫혀 버린 아영의 방 문앞까지 가서 문을 열려다가 차마 문고리를 열지 못하고 손을 아래로 툭 떨군다. 아영의 방 문만 쳐다보는 정숙의 쓸쓸함 가득한 얼굴 위로….

정숙(NA) 좋은 엄마이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에 할퀴어 아이는 많이 아팠나 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마음 깊은 곳이 욕신, 아리고 아려 온다.







8. 00은행 건물 입구, 낮.

정숙, 통장잔고를 확인하며 걸어와 은행 앞에 다다르고 들어가려는데,  
남훈이 은행 문을 열고 나오다가 정숙을 보고 놀란다. 정숙도 남훈을 보고  
놀란 눈으로 얼굴에 반가움이 피어난다.

남훈        정숙이, 한정숙 맞지?

정숙        ...남훈 오빠? 고남훈 오빠야?

마주보며 반갑게 미소짓는 정숙과 남훈의 모습에서... 

(1화 엔딩!

## 한국장애인사

# 관현맹인 홍석해, 하효달, 김석명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장애예술인을 육성하며 장애인예술을 발전시킨 성공적인 장애인예술정책으로 관현맹인이란 제도가 있었다(정창권, 2011). 관현맹인은 관습도감에 소속되어 세종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설치하였다. 세종실록 제25권에 ‘맹인들이 거문고와 비파를 타는 것으로 직업을 삼아 생계를 이어 왔는데 근래 국상으로 인하여 음악을 정지하여 살아가기 어렵다고 고하자 왕은 각기 쌀 한 섬씩을 주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시각장애인 가운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관악기와 현악기 등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관직과 녹봉을 올려 주어 자립하도록 하였다. 관현맹인은 양인뿐 아니라 천인 중에서도 선발하였는데, 장악원에서 1년에 4차례 이조에 추천서를 올려 사령서(辭令書)를 받아 임용하였다(임안수, 2010).

성종실록 제8권에 보면 ‘내연 때에는 악공을 쓰지 말고 맹인으로 주악을 연주하게 하라.’는 기록이 있고 연산군일기 제41권에도 ‘맹인 음악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녀들로 하여금 연주하게 하라.’는 기록도 나오는데 이것으로 시각장애인 음악인을 임금이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현맹인은 국란이나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고종 때에도 장악원에 5명의 관현맹인이 있었다는 것으로(대전회통 장악원조, 고종 2) 조선 500년 동안 시각장애인 음악인은 왕실의 사랑을 받으며 조선시대 장애인음악의 주체가 되어 왔다.

### 왕에게 상소를 올리다

관현맹인제도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시행되었지만 몇 차례 중단된 적이 있었다. 병자호란 이후가 바로 그때였는데, 숙종 대에 몇 명의 관현맹인들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 「악장등록」에는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그들은 각각 하효달(河孝達), 홍석해(洪碩海), 김석명(金碩明)이라는 관현맹인이다.

다음은 숙종 1년 5월 25일 관현맹인 하효달(河孝達)이 임금에게 올린 상소가 기록된 「악장등록」의 일부이다.

예조의 점목(粘目)으로 관현맹인의 부록(付祿)을 정탈(定奪)하는 일에 관한 상소에 의거하여 예조가 이미 계하하신 바에 점연한 계목에 이르기를,

“지난번 관현맹인 하효달은 기한 안에 관청에 나타나 호구를 빙고하여 친 소장을 바친 것이 적실이옵거니와, 상소의 사연을 살펴보니, 예전부터 관현맹인을 시재하여 녹봉을 주다가 병자호란 이후 임시로 줄였습니다. 을사년부터 다시 시재하여 급료를 줌으로서, 자네들은 본래의 직업을 버리고, 장악원의 소속으로 매번 대령한 지가 지금까지 10년이옵거늘, 올해 3 월분의 급료를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으므로, 시재자의 부록에 대하여 전하의 은혜를 바라고자 이렇게 상소를 하옵셨는 바입니다. 관현맹인들은 시재자의 봉급을 아직까지 주지 않은 이후로 달리 자생의 길이 없사오니, 명과맹인의 예에 따라서 시재자에게 급료를 주어서 음악을 연습하도록 함이 무방하고 마땅할 것 같사오며, 이미 줄인 급료를 저들이 얘기한 바 대로 가볍게 복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소한 사연을 그대로 시행치 말도록 함이 어떻겠사옵니까?”

라고 하였다. 강희 14년 5월 25일 동부승지 신(臣) 강모(姜某)가 차지로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고 윤허를 받았다.(숙종 1년 5월 25일조)<sup>1)</sup>

하효달의 상소가 전해진 지 5년이 지난 후 관현맹인 홍석해(洪碩海) 또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이는 하효달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다른 관현맹인들도 점차 자신들의 소리를 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숙종 6년 11월 24일 「악장등록」에 기록된 홍석해의 상소 내용이다.

관현맹인 홍석해(洪碩海) 등이 녹봉을 복구해 달라는 상소에 의거하여 예조가 점연한 계목

1) 송방송(1980), 「악장등록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312면.

에 이르기를

“관현맹인 홍석해는 기한 안에 관청에 나와서 호구의 현납으로 친히 소장을 올린 바가 적실하옵거니와, 이번 상소 안의 사연을 보니, 시재한 관현맹인에게 부록토록 한 사항이 법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 이후 여러 관청의 인원을 감생할 때, 관현맹인과 명과맹인을 함께 줄일 것을 상의했습니다. 지난 정유년 진연 때 성재자(成才者) 13명을 뽑아서 단료를 주고서 음악을 연습하도록 하옵시다, 기유년 다시 감생하여, 지금은 오직 단료를 받는 5명의 체아(遞兒)만이 남아 있사옵니다. 그 후 명과맹인의 부록은 복구하였사오나, 관현맹인만이 복구되지 않았으므로 자생의 길이 없었는데, 특별히 해당 조에 명령하여 법전대로 녹봉을 주어서 기아의 염려가 없도록 조치한 바 있사옵니다. 시재된 관현맹인에게 부록토록 한 사항이 비록 법전에 있다고 하지만, 병자호란 이후에 감생하여 오직 단료로 부치게 된 것은 경용(經用)이 넉넉지 못한 까닭에서 나온 일이오니, 나라 살림이 탕갈한 때에 이미 감한 녹봉을 다시 복구하면, 그 형편이 쉽지 않을 것이옵니다. 상호한 바가 비록 절실하다고 하지만, 지금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이제 그냥 놓아 둬야 어떻겠사옵니까?”

라고 하였다. 강희 19년 11월 24일 우승지 신(臣) 박순(朴純)이 차지로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고 윤허를 받았다.<sup>2)</sup>

하효달과 홍석해뿐만이 아니었다. 관현맹인들은 개인이든 무리든 상관없이 정부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는 10여 년에 걸친 관현맹인들의 상소로 이어졌다. 숙종 12년 4월 16일에 김석명 또한 다른 관현맹인들과 함께 자신들이 다시 관현맹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현맹인 김석명(金碩明) 등이 상소한 바에 의거한 예조의 점목에 이르기를

“지난번 관현맹인 김석명 등은 기한 안에 관청에 나타나서 호구의 현납으로 친히 소장을 올린 바가 적실이옵거니와, 이번 상소 안의 사연을 보건대, ‘옛날부터 관현맹인을 시재해서 부록했다고 하는데, 병자년 이후 감생하고 그 후 을사년에 성재자 13명을 뽑아서 단료를 주었다가, 정유년에 다시 줄여서 지금은 오직 단료를 받는 5명의 체아만이 남아 있는 바, 이들은 보잘것없는 몇 말의 쌀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비록 녹봉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을사년의 전례대로 13명의 체아를 연차로 부료(付料)함으로서 배고픔의 원한이 없도록 하옵

2) 송방송(1980), 앞의 책, 328면.



고자 이러한 상소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관현맹인들은 자생할 다른 길이 없어서 진실로 궁핍하오니, 명과맹인의 전례에 따라서 시재하여 녹봉을 줌으로서 음악 연습을 열심히 하도록 해 주어도 무방할 것 같사오되 그들이 상소한 바로서 가볍게 옛대로 복구할 수 없사오니, 상소한 사연을 지금 그대로 놓아 둬어 어떻겠사옵니까?”

라고 하였다. 강희 25년 47월 16일 동부승지 신(臣) 신엽(申曄)이 차지로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고 윤허를 받았다.<sup>3)</sup>

관현맹인들은 병자호란 이후 국가가 지급하던 녹봉이 중단되자 이로 인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떠한지 왕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는 예조에 의해 숙종에게 보고되었고, 곧 이들을 위한 조치가 내려졌다. 비록 하효달, 홍석해, 김석명 등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받지 못한 녹봉을 다시 지급받진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었고,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초기에는 관현맹인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의 돈을 지급했지만 후에는 그들의 본업인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조치가 그것이었다. 이밖에 이들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관현맹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조선시대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위의 자료는 관현맹인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했던 조선시대 사회상도 엿볼 수 있게 한다. 

3) 송방송(1980), 같은 책, 342면.

## 세계장애인물사

#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독서

###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

미국 링컨 대통령은 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데 링컨 대통령이 수염을 기른 것은 한 소녀의 편지 때문이었다.

링컨 대통령은 안면에 장애가 있어서 인상이 좋지 않았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염을 기를 것을 권했던 건데 링컨은 어린 소녀의 충고를 받아들일겠다고 답장을 쓰면서 꼭 한 번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링컨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소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때 링컨은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녀의 집을 방문했다. 그때 소녀는 흑인 하녀의 딸과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고 한다. 인종 차별 없이 그렇게 어울려 사는 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링컨이 소녀의 집에 머문 것은 단 10분이었지만 링컨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신뢰심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고, 또 링컨 자신은 ‘노예해방’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 위대한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은 이렇게 소박했다.

노예해방의 위업을 달성한 1865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조출한 축하 파티가 열렸다. 파티를 시작하며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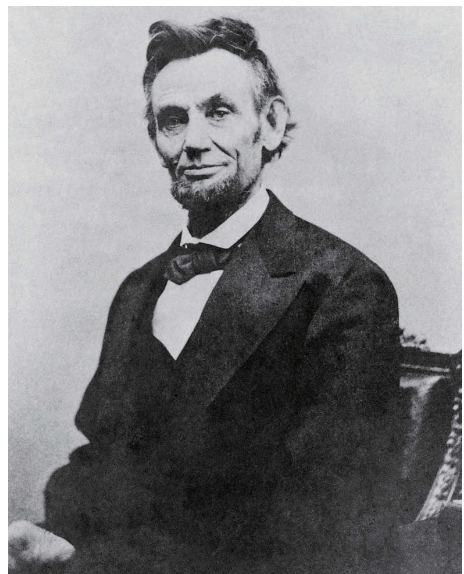
“나는 오늘 두 분의 여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은 어린 나에게 책 읽기 습관을 길러 주신 새어머님이요, 한 분은 「영클 톰즈 캐빈」을 쓰신 스토 부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연재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힘이 생기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흑인을 도와주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나는 그때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앵클 톰즈 캐빈(Uncle Tom's Cabin)』을 통해 당시 미국 사회의 모순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된 후, 흑인 노예에 관해 남북의 대립이 고조되자 남북전쟁을 해서라도 노예해방을 완성하리라 결심하게 된다. 만약 그때 링컨이 『앵클 톰즈 캐빈』을 읽지 않았다면 노예해방의 시기가 많이 늦어졌을 텐데 그러면 미국이 세계적인 강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된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은 1809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8세에 어머니와 사별하고 학교교육은 생애를 통틀어 1년도 채 받지 못하였으나 독서로 공부를 하였다. 이런저런 잡일을 하며 법률 공부를 한 후 1836년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유머러스한 화술로 비상한 인기를 얻었다.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에 선출되어 정치를 시작하는데 미국·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인기를 잃고, 은퇴하여 다시 변호사로 돌아갔다. 1856년 새로이 조직된 공화당에 입당하여 노예제 확장에 반대했다. 1860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을 선언하였다. 그해 11월 격전지 게티즈버그에서 한 2분간의 연설 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귀절은 민주주의의 지침이 되었다. 대통령에 재선(1864)된 후 취임사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는다.’는 연설로 감명을 주었다. 다음해 4월 9일 남북전쟁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 불행히도 5일 후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암살되었다. 링컨은 지금까지 미국 국민의 존경 대상이 되고 있다.



## 링컨의 일화

### - 실패에 대한 책임

링컨 대통령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다. 남북전쟁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게티즈버그 전투의 총사령관인 미드 장군에게 링컨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작전에 실패하면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한다.

작전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미드 장군의 공로라고... 이 친서를 받고 미드 장군은 큰 용기를 얻어 소신껏 전투 명령을 내릴 수 있었기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 - 적을 친구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만들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게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 에드윈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주위에서 모두 말렸지만 링컨은 이렇게 설득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에드윈은 내각에 입각한 후 링컨 대통령을 정말 열심히 도왔다.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은 순간도 에드윈 장관은 링컨 대통령을 부들켜안고 통곡을 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다.”

### - 잘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부터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게 된다고 링컨이 말했다. 링컨의 남다른 업적은 잘될 것이라는 긍정의 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통의 아이콘 신홍윤

### 남다른 출발

장애인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홍윤이란 이름을 기억한다. 요즘 가장 언론 노출이 많은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나대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외모도 수려하고, 표현 능력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신홍윤은 2남 1녀의 둘째로 태어났다. 자연분만을 하려다가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뇌성마비 장애가 생겼다. 그는 장애가 심한 상태이지만 언어장애가 생기지 않고 뇌성마비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보행을 하지 않으면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업혀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술을 하고 목발을 사용하게 되었다. 실내에서는 목발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그는 일반학교를 다녔다. 통학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는 친구들과 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먼저 말걸기를



하였고, 그 덕에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고2 때 수술 치료 때문에 6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니 공부에 흥미를 잃어 공부를 등한시하자 다섯 살 위인 누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따끔한 충고를 해 주었다. 그래서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결과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생이 된 신홍윤은 특유의 나대기 성격으로 학생회 활동을 하며 환경운동을 위해 시위에 참여하여 대중연설을 하면서 존재감을 높여 갔다. 그러던 중 삼성전자에서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한다는 공고가 났다. 장애대학생들은 대기업 취업의 문이 너무나 좁았었기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권하였다. 그는 학점도 좋지 않았고, 업무에 필요한 스펙도 없는 상태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합격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때가 2011년이였다. 그가 한 일은 모니터 시장점유율 분석이었다. 틀에 박힌 듯한 직장생활은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4세 때



고교 시절

### 인생의 시계를 되돌려서 다시 시작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고민하게 되었다. 만약 인생의 시계를 돌린다면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니 고3이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인턴생활을 끝으로 직장생활을 접었다. 부모님은 미래가 보장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셨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3학년으로 복학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재수를 택했다. 그리고 남들이 졸업을 할 나이인 25세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 신입생이 되었다.

그때가 2013년이다. 그는 장애인은 먼저 나서지 않으면 뒤로 뒤로 밀려나서 나중에는 ‘너 거기 있었니?’라고 할 정도로 장애인에게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대는 장애인이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취업시장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잣대로 평가받는다라는 것도 알았다. 장애인에게는 성적이나 스펙 같은 능력 평가보다는 얼마큼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



는 경험이 중요했다. 취업시장은 장애인의 실력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장애인의무고용으로 입사한 장애인 직원이 회사에 잘 적응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새로 시작한 대학생활을 공공의 대표자가 되는 일에 몰두하였다. 고려대 장애인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고려대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아주 특별한 경험

드디어 2015년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중증장애학생이 총학생회장이 되어 학내 정치로 대학 분위기를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정치로 세상을 개혁해 보겠다는



고려대 학기 중



직접 기획한 고려대학교 인권문화제 행사 중



연극 동아리 활동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 친구들과 함께



큰 포부를 갖고 있었다. 선거캠프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학내 소수자 그룹이 다 모여서 신홍윤을 당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다. 추천인수도 4천 명이 넘어 총학생회장 선거사상 가장 많은 추천인수를 자랑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캠프에서 신홍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다른 후보가 등록금을 깎겠다, 자판기를 곳곳에 설치하겠다 등의 공약을 내었을 때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민원이나 처리하는 심부름센터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취업 시장에서 약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학생들이 열광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참혹했다. 약세였던 그래서 주목받지 못했던 2위 후보자가 당선인 된 것이다. 신홍윤은 깊은 좌절의 늪에 빠졌다. ‘장애인도 해낼 수 있어.’라고 믿던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아직 사회가 장애인을 리더로 받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에 절망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대통령 자리를 놓고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힐러리의 대세론을 트럼프가 꺾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미국도 아직 여성을 대통령으로 만 들지 못하는 차별의 한계를 통감했다.

### 방송인으로서

2017년부터 장애인전문채널 KBS3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에 고정 연사로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KBS에는 장애인앵커제도가 있어서 그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다. 그래서 방송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오면 마다하지 않고 모두 받았다. 유튜브 팟캐스트 진행도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도 하면서 장애인앵커 준비를 했다.

그래서 2019년 첫 번째 도전을 했지만 낙방하였다. 2020년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1년에 재도전을 했지만 여성 장애인앵커가 탄생하였다. 실패가 없는 삶은 없지만 그래도 실패를 할 때마



〈당장만나〉 WITH 안혜경



라디오 스탠바이



라디오 녹음 중



강의중



다 주춤거리게 된다.

신홍윤의 목표는 장애인이 장애인 이야기를 더 이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장애인문제가 보편적인 일상이 되어 자기도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사회가 될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공공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1989년생으로 이제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그가 인터뷰를 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바로 이것이다.

“연애, 너무너무 하고 싶죠.”

신홍윤의 자기소개서 가운데 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2쪽지를 소개한다.

## 앞에 나서는 장애인

어린 시절부터 저는 장애인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 제가 타인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많은 사람임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 제 삶의 태도가 많은 곳에서 저를 나서는 사람, 리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인 동시에 대표자라는 위치가 제 정체성 가장 밑바탕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한 학창 시절을 연이어 반장으로 보냈고, 대학에 와서도 학생대표자 활동을 쭉 이어 왔습니다. 하다못해 조별 과제 때마다 저는 대부분 발표와 조장을 맡아 왔습니다. 대표자뿐만 아니라, 연극배우로 사람들 앞에서 본다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애니메이션 성우 일을 해 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 왔습니다. 그러한 철학의 연장으로 현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송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삶의 많은 시간을 공공의 대표자로 보냈습니다.



서울시 청년의회 장애인 분과 활동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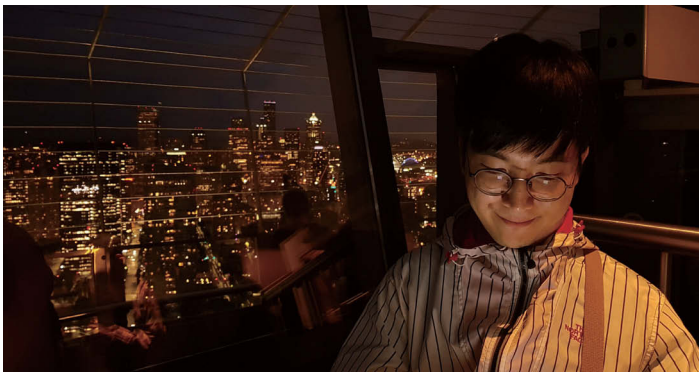




독일 연수 당시



캘리포니아 금문교에서



시애틀 연수 당시



졸업식



### 신흥윤=소통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타인과 소통해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부축 등 일상에서 타인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분단위로 찾아왔고, 제 몸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일도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덕분에 저는 타인과 보다 잘 연결될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했고, 상대방도 그런 저를 도우며 자신의 힘든 점을 편하게 제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필요로 하는 제 몸이 솔직한 소통의 연결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는 만큼 상대방의 고민과 어려움을 듣게 됐고, 제가 도움을 받았듯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진솔하게 쌓아가니 소통은 제가 가장



반려견 명군이와 산책중



보건복지부 장애 인식개선 강사 위촉식



삼성전자 동기들과 함께



여행 프로그램에서

잘 해낼 수 있는 저의 재능이 됐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를 넘어 이제 소통을 저의 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작 중인 보건복지부의 유튜브 '당장만나'에서 저는 매회 다양한 사회 명사들을 만나 솔직하고 의미 있는 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부터 연예인, 청소년, 자폐성장 애인, 조현병 당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며,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은 그간 제가 쌓아 왔던 소통의 경험들과는 또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3시간 남짓의 긴 녹화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기 위해 저는 그들 각각의 생애과정을 들여다 보았고, 이런 노력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소통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일신시키는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 쉬

문인수(1945~ )

그의 상가엘 다녀왔습니다

환갑을 지난 그가 아흔이 넘은 그의 아버지를 안고 오줌을 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生)의 여러 요긴한 동작들이 노구를 떠났으므로, 하지만 정신은 아직 초롱 같았으므로 노인께서 참 난감해하실까 봐 “아버지, 쉬, 쉬이, 어이쿠, 어이쿠, 시원하시겠다야.” 농하듯 어리광 부리듯 그렇게 오줌을 뉘었다고 합니다

온몸, 온몸으로 사무쳐 들어가듯 아, 몸 깊아 드리듯 그렇게 그가 아버지를 안고 있을 때 노인은 또 얼마나 더 작게, 더 가볍게 몸 움츠리려 애썼을까요

툭, 툭, 끊기는 오줌발, 그러나 그 길고 긴 뜨신 끈, 아들은 자꾸 안타까이 파에 붙들어 매려 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이제 힘겹게 마저 풀고 있었겠지요, 쉬-

쉬! 우주가 참 조용하였겠습니다

사색의 계절이 따로 있을 수야 없겠지만, 가을은 분명코 참 사색의 계절임이 틀림없습니다. 시인 황동규는 「十月」이란 작품에서 ‘내 사랑하리 시월의 강물을’이란 표현을 했고, 전봉건은 「十月의少女」에서 ‘시월의 소녀는 사과 속에 숨어 있다.’라고 했지요. 철학자 플라톤은 일찍이 ‘인간은 사랑을 했을 때 누구나 시인이다.’란 어록을 남겼으니 가을은 모두를 시인 되게 하는 특별한 계절임이 틀림없습니다.

시월의 가을은 인간사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일생을 가장 가깝게 체감하는 달이기도 하지요. 나 못없이 점점 붉게 물들어 갑니다. 이제 곧 툭툭 떨어지겠지요. 구르몽의 〈枯葉·落葉〉을 떠올리기도 하고 미당의 〈국화 옆에서〉를 비롯한 가을 시를 읊조리기도 합니다.

문인수의 〈쉬〉는 눈가를 축축이 젖게 하는 작품이지요. 생로병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창조의 질서이며 섭리이기에 어찌면 가장 아름답게 피는 세상사 순응의 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만 때로 가슴을 저미게 하는 절절함이 있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가을만큼 깊이 깨닫게 하는 계절도 드뭅니다. 가을은 겸손을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이란 생각도 드네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번쩍번쩍 철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 모르겠습니다. 머지않아 바로 나의 얘기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나 스스로가 바로 이 시 속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앞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인간이란 가난한 이름 때문에’라고 김남조 시인은 노래했지요. 하여튼 시월은 술한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멋진 달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Love each other)! 정녕 시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칩니다. 



강 남 국

수필가, 칼럼니스트, 영어교육 봉사자, 활짝웃는독서회 회장. 계간 『문학에스프리』 등단. 제27회 아산상 수상 등. 저서 「나눔 속에 핀 꽃」, 「아버지의 손과 지게」, 「삶을 나르는 시」, 「책 아저씨, 강남국」(1, 2권)



## 탤런트 박민우의 전신마비장애

**탤**런트 박민우가 2018년 3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장애를 갖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박민우는 1988년으로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11년 tvN 드라마 <꽃미남 라면가게>로 데뷔한 후 SBS <돌아와요 아저씨>, MBC <가화만사성>, KBS <선녀가 필요해>, OCN <더바이러스> 등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영화, 광고, 예능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2017년 사회복지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하였다.

복무를 마치고 더 멋진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018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서울 동호 대교에서 교통사고로 경추가 손상되어 전신마비가 되었다.

박민우는 현재 아버지가 간병 중인데 아직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188cm의 훔칠한 키에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가 매력적인 외모로 팬들의 사랑을 받던 박민우가 재활 과정을 빨리 마치고 팬들 앞에 다시 서기를 기대한다. 

## 방탄소년단 신곡에 국제수어 퍼포먼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를 발표했다. 〈퍼미션 투 댄스〉는 발표되자마자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 특히 전 세계 농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왜냐하면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 속의 안무가 국제수어 퍼포먼스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감사 인사를 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지난 자신의 트위터(7월 11일)에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를 공유하며 ‘청각장애로 음악을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세계 15억 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BTS 국제수어 퍼포먼스

수어란 손으로 전하는 대화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어는 모든 나라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수어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수화를 수어로 명칭하면서 한국 수어는 하나의 언어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방탄소년단이 활용한 국제수



BTS UN연설

어 퍼포먼스는 ‘즐겁다’, ‘춤추다’, ‘평화’를 의미하는 동작이 연결되어 있다.

엄지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을 반쯤 구부린 채 몸을 굽는 듯한 동작은 ‘즐겁다’라는 뜻이고, 한 손바닥을 무대삼아 다른 손의 두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은 ‘춤을 추다’라는 의미다. 그리고 두 손으로 브이(V)를 만드는 동작은 ‘평화’의 상징이다.

방탄소년단 덕분에 수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9월 20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제76차 유엔총회 특별행사 ‘SDG 모멘트’ 개최 세션에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대표해 연설을 하며 우리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 장애아 육아 웹툰 &lt;열무와 알타리&gt;

뇌성마비장애가 있는 여섯 살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이야기를 소개한 육아웹툰 <열무와 알타리>가 누적 조회수 천만 회를 넘겼다.

작가 유영 씨는 그 어디에도 장애를 가진 아이와 그 부모의 이야기는 볼 수 없어서 직접 그리게 됐다고 육아웹툰 <열무와 알타리>의 작업 배경을 밝혔다.

뇌성마비 장애아 ‘열무’와 열무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알타리’를 키우는 작가 본인의 이야기이다.

“남들보다 느린 시간을 사는 아이를 키우는 건 이정표 없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고… 매일을 버티며 세워 둔 감정의 도미노는 평범한 가족을 보는 순간 한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힘든 시간을 남기고 싶지 않아 사진도 잘 찍지 않았었는데, 웹툰으로 기록하자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년 남짓 연재하면서 비슷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 뇌성마비 대학생, 그리고 이들을 마주하는 소아과 의사까지 새로운 만남이 생겼습니다.

함께 위로받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행복에는 정답이 없고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유영 작가

## 배우로 성장하는 밀리센트 시몬스

2017년 영화 <원더스트릭>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에 등장하며 주목받고 있는 배우 밀리센트 시몬스는 청각장애인이다.

2003년생 생후 12개월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청력을 잃었다. 농학교 때 연극부 활동을 하였고, 졸업 후 고향인 유타주에서 연극무대에 서다가 2017년 12세의 나이에 영화 <원더스트릭>으로 데뷔했다. 250: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 합격해 캐스팅된 것이다. 이 영화에서 청각장애인 캐릭터인 로즈 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으며 영화 시상식의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

2018년 공포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에 리건 역으로 출연하며 또다시 화제가 되었다. 제작사에서는 리건 역에 실제 청각장애 배우를 캐스팅할 생각이 없었는데, 감독인 존 크라신스키의 권유로 시몬스가 스크린 테스트를 거쳐 배역을 맡게 되었다. 촬영 현장에서 수어 통역사와 동행하여 소통했고, 다른 출연진들에게 수어를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2021년 <콰이어트 플레이스2>에서는 시몬스의 캐릭터가 영화의 테마와 가장 깊게 관련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존 크라신스키 감독은 그녀의 캐릭터를 주연으로 내세우며 스토리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



## BBC 어린이 프로그램에 다운증후군 웹스터 MC 발탁



BBC의 어린이 채널 ‘씨비비즈(Cbeebies)’에 조지 웹스터가 새 진행자로 등장한다는 소식에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씨비비즈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조지 웹스터(20)가 유아교육 프로그램 ‘씨비비즈 하우스’진행자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배우이자 댄서인 웹스터는 영국의 지적장애인 인권단체 맨캡(Mencap)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이 차세대를 위한 채널에서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기뻐했다.

웹스터는 ‘사람들의 반응에 참 놀랐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받고 있다니 매우 기뻐요. 저는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멋진 일이에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 아트앤셰어링의 공감각 프로젝트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문화예술단체 아트앤셰어링입니다. 아트앤셰어링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서울시 산하 비영리단체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356명의 회원이 예술가 549명과 함께 95개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약 5,1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문화예술나눔의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www.artnsharing.org](http://www.artnsharing.org)) 2021년에는 ‘공감각 프로젝트’를 실시하기에 소개합니다.

올해 아트앤셰어링의 프로젝트의 주제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세계와 교감할 수 없습니다.

‘언어’라는 주제의 중요성과 가치에 공감한 아트앤셰어링의 시각예술팀 ‘아트기움’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담론의 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트앤셰어링은 특히 장애인 집단에 주목했습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주된 소통 방식인 담론의 장에서 가장 쉽게 소외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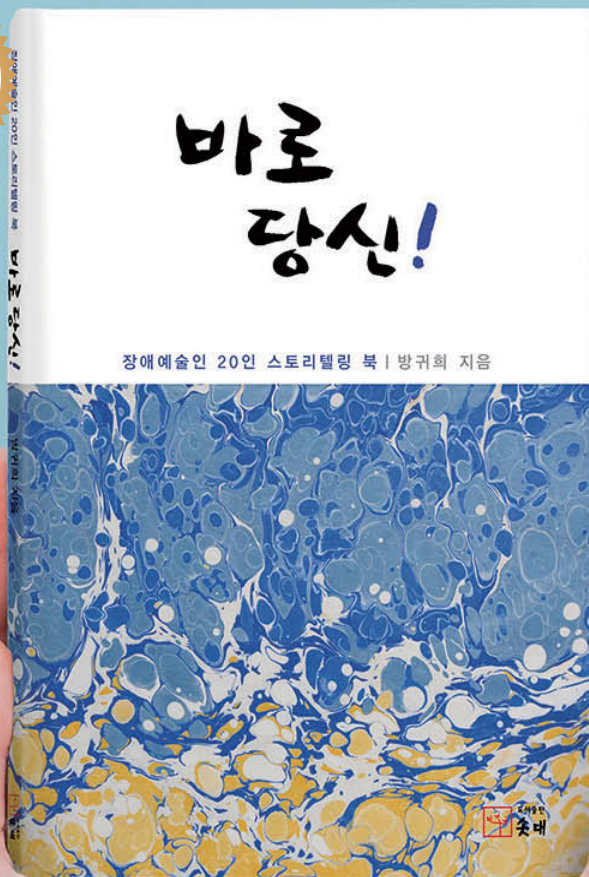
소통을 위한 언어가 오히려 단절과 구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예술이라는 언어 안에서는 각자가 가진 언어와 다양한 개성들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이 바로 다양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 가장 포용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감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감각’을 실현하는 것이 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소외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각 프로젝트는 이러한 소통의 부재와 괴리에서 오는 간극을 다양한 감각을 녹여낸 예술을 통해서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교감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긴 공감각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장애는 또 하나의 창의적인 언어이며, 전시 주제나 설명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美지  
창간 5주년  
특별기획



손병걸  
최지현  
조성진  
이지원  
이 훈  
이정희  
이현학  
허용호  
고아라  
이상재  
황원교  
한부열  
이남현  
김지연  
박 환  
최예나  
김 뜰  
임경식  
황주희  
김건호

## 장애예술인 20인 스토리텔링 북 | 방귀희 지음

# 바로 당신!

도서출판 슛대  
신국판 | 224면 | 값 15,000원

『E美지』의 ‘반하다’ 코너는 문학, 미술, 음악, 대중예술 분야에서 5주년 동안 80명의 장애예술인을 발굴 소개하여 장애인예술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코너만큼은 방귀희 발행인이 직접 집필을 하였는데 방 발행인은 ‘그동안 내가 만난 장애예술인은 1천여 명이고, 『E美지』 인터뷰를 5년 동안 하며 100여 명을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 가운데 감동의 여진이 계속되는 장애예술인 20명을 선정하여 독자들에게 그 전율을 전해 드리고자 한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구상숯대문학상 30주년 기념 Poem & Photo **숯대시인에게 인생을 묻다**

# 인 · 생 · 예 · 보

연인M&B  
특별기획

방귀희 엮음 | 전호경 사진



구상숯대문학상 수상자 39명의 장애인인으로 엮은 이 책은 『숯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장애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

해양환경 전문가로 사진작가인 전호경 박사의 사막과 바다를 소재로 한 사진작품과 함께 poem & photo북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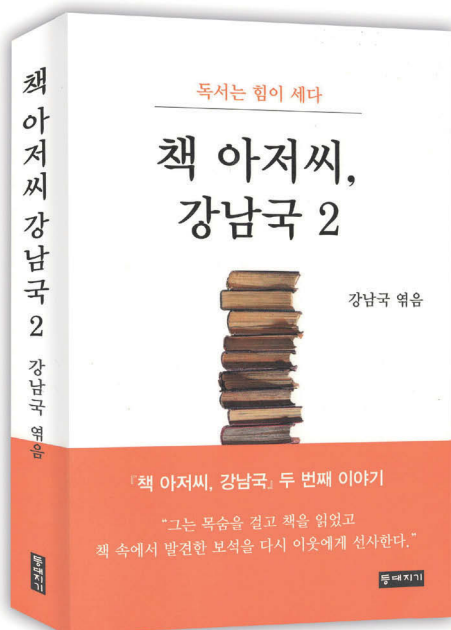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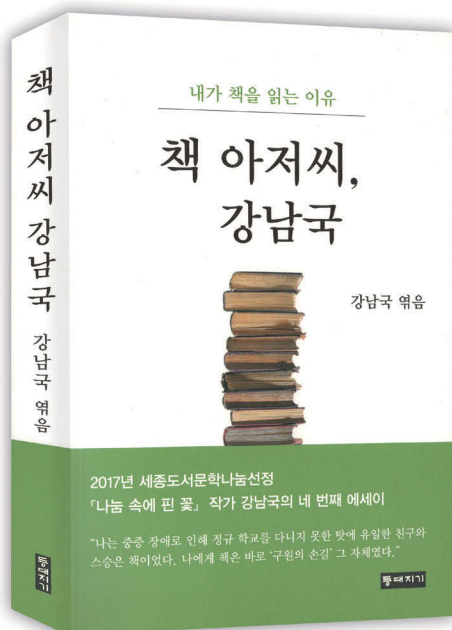


신국판 | 111면 | 값 13,000원

『숯대문학』에서 문학상을 제정하여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수상작들을 모아 시집을 엮은 것은 새로운 역사 창조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울림이 큰 시들을 지어 내고, 꾸준히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_김초혜(시인, 구상숯대문학상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에게는 『숯대문학』이 그 어느 문예지 못지않게 소중하다. 우리나라 유일의 장애인문학지여서가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던 이름 모를 들풀 같은 시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소개하면서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다. 구상숯대문학상 30년의 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수상작 모음집 출간을 진정으로 축하하며, 『숯대문학』 30년 여정에 박수를 보낸다. \_유자효(시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 책 아저씨 강남국1, 2권 완결!



책에 목숨 건 사람  
책을 사랑하는 남자

독서의 힘을 체험했기에  
강남국은 평생을 책 전도사로 살고 있다.

책 아저씨 강남국1/내가 책을 읽는 이유/388면  
책 아저씨 강남국2/독서는 힘이 세다/384면  
각 권 13,000원

도서출판 등대지기

서울시 가산디지털2로 98, 2동 1110호(가산동 롯데IT캐슬)  
전화 (02) 853-2010 팩스 (02) 857-9036 이메일 sehee0505@hanmail.net



# ‘싱싱한 메시지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

감성과 이성 그리고 상식이 단단히 압축된 새로운 짤글 형식의 명상록!  
365개 메시지로 1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주는 마음 공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사회적 메시지로 품격 있는 언어문화 형성!



공익적 글쓰기에 능숙한 방송작가 **방귀희**와  
긍정의 단어로 표지를 디자인한 방송인 **강원래**가  
「**장애예술인지원법**」기금 마련을 위해  
가열차게 펼치는 대국민 릴레이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로 소확행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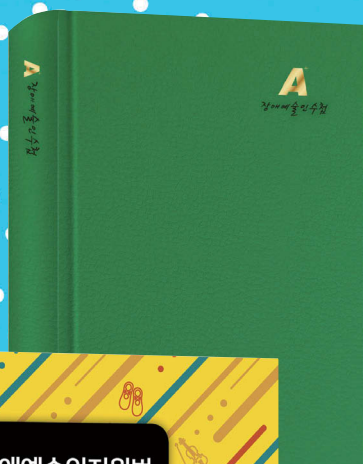


주최 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www.emiji.net](http://www.emiji.net)

연인M&B 전화 (02)455-3987

「장애예술인지원법」 지원을 위한

# 장애예술인 수첩 참여자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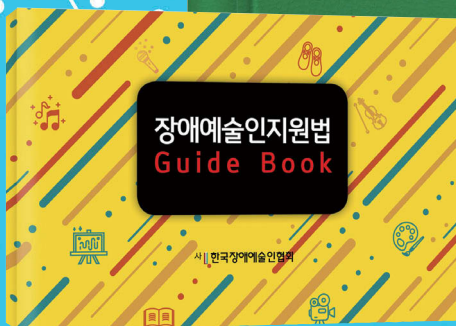
2022년 「장애예술인 수첩」  
개정증보판 제작!

- 예술활동증명과 연결
- [www.emiji.net](http://www.emiji.net) 등록

☞ 2021년 12월 31일까지

[www.emiji.net](http://www.emiji.net) → E곳 → 알림방

문의 (02) 861-8848  
이메일 [emiji100@gmail.com](mailto:emiji100@gmail.com)



주최 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www.emiji.net](http://www.emiji.net)

# 세계 유일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이 발간되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을 통해 장애예술인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3만 2천여 명 장애예술인들의 필독서!



- 장애인예술 정의
- 장애인예술 장르
- 장애인예술 실태
- 장애인예술 이론
- 장애인예술 역사

- 장애인예술 발전 과정
- 장애인예술 사업
- 해외 장애인예술
- 장애예술인지원법 해설
-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을 위해 등

※10장으로 구성된 비매품



2021美캠페인  
JUST ART!

美



『E&A』2021 겨울호 VOL. 22 정가 12,000원